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16호 【루계 제25259호】 주체105(2016)년 4월 25일 (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 설

조선인민군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영원히 백승을 떨칠것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정의 70일전투를 야전군에서 승전보성을 높이 울리며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만리마의 기상으로 폭풍쳐 나아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조선인민군창건 84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전군절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운명개척과 영웅적투쟁행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의 날이다. 이날과 더불어 조선혁명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하게 되였으며 백두에서 시작된 승리의 전통이 줄기차게 이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우리 인민을 이끌어 시대와 력사앞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고 조국번영의 천만년미래를 열어놓은 조선로동당의 높은 권위와 령도력도 전군절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올해의 총진군길에서 전군절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청사에 불멸의 위훈을 아로새기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고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최정예의 수령결사옹위군, 불패의 당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광의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제일먼저 추켜들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앞장에서 견결히 수호해온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혁명앞에 쌓아올린 공적중의 공적입니다.》

혁명군대의 최대의 사명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보위하는데 있으며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무장력만이 백전백승을 떨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21(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것은 혁명무력건설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다.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어올리고 한벌옹위정신을 만장약한 열혈투사들로 조직된 새형의 무장대오가 우리 혁명군대이다. 주체적혁명무력이 창건됨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군사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군대는 첫걸음부터 사상과 정신, 활동방식과 투쟁기질에 있어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쳐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사상과 군령도는 인민군대의 모든 군사정치활동의 지침이고 생명선이였으며 수령님의 불같은 동지애, 전우애는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의 근본원천이였다. 전군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리로 굳게 뭉쳐 혁명의 사령부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믿음직하게 받들었기에 인민군대는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복구건설,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울수 있었다. 지원의 뜻이 어린 두자루의 권총에 시원을 둔 선군혁명을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으로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전군사에 쌓아올리신 가장 큰 업적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명실공히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신 희세의 령장이시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가장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로 일관되여있으며 수령님의 전군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군력강화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온 전설적인 로정으로 수놓아져있다. 전체 장병들의 심장속에 혁명적수령관이 맥박치는 백두산총대의 사명감을 굳게 심어주시고 전군김일성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들어쥐고오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앞장에 내세우시고 전군에 오중흠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유일적령군체계가 철저히 확립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세계정치사에는 명성을 떨친 군사가, 정치가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지략, 비범한 령군술,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숭고한 인덕과 고매한 풍모를 지닌 천하제일명장은 없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슬하에서 혁명의 년대들마다 백전백승을 떨쳐온 나날에 우리 인민군대는 백옥같은 충정과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최고사령관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로,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참된 동지부대, 진정한 전우부대가 되여 최고사령관의 사상과 전법, 기상과 배짱으로 싸워나가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다.

혁명은 수령의 뜻이고 의지이다. 혁명의 전초선을 지켜선 인민군대를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키우시여 가장 고귀한 혁명유산으로 물려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전군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여 억척불변의 수령결사옹위군, 불패의 당군으로 끝없이 위용떨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군대를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군대로 만드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주체적혁명무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절출한 정치군사가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눈물의 언력을 넘어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것은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을 총대로 계승완성해나가실 철석의 의지의 선언이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주체혁명의 생눈길을 헤치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의 자욱이 어린 인민군부대들을 쉬임없이 찾으시여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들을 환히 밝혀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고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령활무쌍한 지략으로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을 비상히 발전풍부화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천만장병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짤바람정신을 깊이 심어주신 원수님의 령도는 우리 혁명무력의 장화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결정적요인이다. 인민군대를 언제나 대고조전군의 앞장에 내세워 위대한 수령님들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최대의 속도로 최상의 수준에서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무력을 이끄시는 나날 우리 인민군대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 풍모에 끝없이 매혹되여 오직 백두의 혈통만을 따르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비상히 강화되였다. 당중앙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천연요새를 쌓고 최고사령관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수령결사옹위군,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틀어쥐고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나아가는 불패의 당군, 백두의 공격기상으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눈부신 현실로 펼쳐나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가 우리 인민군대이다. 바로 여기에 세기를 이어 주체혁명의 명맥과 승리의 전통을 굳건히 고수해나가며 천하무적의 일당백강군으로 위용떨치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진면모가 있다.

조선인민군이 창건된 때로부터 80여성상이 흘러갔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존엄떨쳐온 우리 혁명무력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남김없이 파시하고있는것은 선군조선의 크나큰 자랑이다. 그 어떤 광풍이 불어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최정예의 김정은혁명강군으로 백승을 떨치려는 우리 인민군대의 신념과 의지는 드팀이 없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전군이 수령옹위의 총폭탄이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믿음직하게 보위하는 제일근위대, 제일결사대이다.

혁명의 수뇌부는 당과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며 그 절대적권위는 총대의 견결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제일생명이다. 항일의 나날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웨치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 신변안전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한 방탄벽이 총대혁명가들이였고 전화의 나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성세, 방패가 인민군대였으며 전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추켜들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고수한 강철의 대오가 인민군대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의 년대들마다 절세의 위인들을 당과 혁명의 수위에 제일먼저 높이 추대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데서 언제나 앞장섰으며 최악의 시련이 겹쌓인 속에서도 전군이 항일의 7련대가 되여 혁명의 수뇌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었다.

하늘땅이 열백번 뒤집히고 역풍이 불어와도 백두산총대의 사명은 절대불변이다. 우리 혁명무력은 백두의 혈통밖에 모르며 오직 당중앙의 령도만을 받든다는것, 태양이 없는 조선을 생각할수 없듯이 수령옹위를 떠난 백두산총대는 있을수 없다는것, 우리의 신성한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는자들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는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확고부동한 신조이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높이 전군이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이 되고 수령옹위의 성새, 불침의 전함, 하늘의 절사대가 되여 원쑤격멸의 기상을 활화산처럼 폭발시키고있다.

지금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참수작전》, 《평양점령작전》실행을 위한 천인공노할 특대형도발행위에 미쳐날뛰고있지만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무자비한 징벌을 피할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수령의 사상과 존함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과 주체적인 전략전술로 반제군사전선에서 련전련승을 떨치는 불패의 강군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을 동반하며 반제투쟁에서의 승패는 총대의 위력에 달려있다.

가장 포악하고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와의 항전을 선포한 때로부터 우리 인민군대는 20세기와 21세기의 반제투쟁사에 세계가 알지 못하는 자랑찬 군공과 혁혁한 전과를 새기였다. 청소한 무력이였지만 승리만을 떨친것은 조선인민군이고 《장대성》을 떠벌였지만 패하기만 한것은 제국주의자들이였다. 우리 인민군대의 백승의 전통, 불패성의 기본요인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전법, 기상으로 싸운데 있다.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끄떡하지 않고 단호히 맞받아나가 숨돌릴새없이 무자비한 심밀적타격을 안기는 대담무쌍한 공격기상, 세계전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그 어떤 형태의 현대전에도 다 대처할수 있는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전술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령활무쌍한 지략은 백두산절세위인들만이 지니신 천품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기상, 만능의 전법으로 《태동아공영권》을 꿈꾸던 강도 일제를 패망시키고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았으며 전후 60여년간의 조미대결전에서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만을 안기였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에 있어서 백승의 비결은 최첨단무장장비보다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백두의 공격기상, 영웅적전투정신을 지니고있는데 있다. 공격형의 위인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있는 조선인민군의 군사적대응방식은 직접이 용맹하기만 하면 즉시에 쳐갈기는 선제공격방식이며 침략자, 도발자들이 미처 정신을 차릴새없이 가장 참혹한 불벼락을 안기는 무자비한 타격방식이다. 올해에 진행된 조선인민군대륙함부대들사이의 쌍방실동훈련,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2016》,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은 제국주의자들에게 무서운 공포와 최후멸망을 안길수 있는 우리 인민군대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오늘 그 존엄과 지위는 최상의 높이에 올라섰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공격기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을 체현하고 최강의 핵타격수단까지 다 갖춘 인민군대를 당할 적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조선인민군이 지켜선 우리 조국은 영원히 금성철벽이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앞장에서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주력군이다.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하며 자강력을 굳건히 다지고 그에 토대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온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는 수령의 사상과 로선, 당정책이 철저히 구현되여온 장엄한 투쟁의 력사이다. 이 성스러운 행로에서 언제나 핵심적,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온 전위대오가 우리 인민군대이다.

당의 구상과 결심을 지상의 명령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훌륭히 실현하는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전통적기질이다. 새 조국건설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전당, 전군, 전국위업을 빛나게 수행하는데서 총대혁명가들은 혁심골간이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빈터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데서도 인민군대는 선봉대, 돌격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선군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고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숭고한 혁명정신, 혁명적문화를 창조한것도 인민군대이며 당이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대고조적전장들에 달려나가 강성국가건설의 진격로를 열어제끼고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는 일당백공격속도로 이 땅우에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세인을 경탄시키는 천지개벽을 안아온것도 인민군대이다.

오늘 우리 당의 결심과 명령은 인민군대의 목표로, 승리로 되고있다. 당에서 일단 결심하면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쳐 내달려 즉시에 집행하고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집행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상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김정일애국주의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문명국건설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전환되고있으며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속에 건설의 대번영기,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는것은 인민군대의 절사관철기풍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인민군대는 첨입식정치사상사업으로 총정의 70일전투의 첫야전군에서 백두의 공격정신과 자력자강의 정신이 총폭발되도록하고 당정책절사관철의 전형이 끊임없이 창조되도록 하는데서도 제일 앞장서나가고있다.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를 따라 돌고있고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는 곧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이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우리 국가의 자강력을 키우며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승리에서 더 큰 승리의 명마루를 정복해나가는 특출한 혁명령도방식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백전백승할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의 권위와 전투적위력을 천백배로 높이고 만리마의 속도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당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의 군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며 당의 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앞장에서 믿음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전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선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는 길이 있다.

인민군대는 그 어떤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백두의 혈통,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지키고 당중앙과 영원히 사상과 뜻, 숨결을 같이하여야 하며 당중앙을 결사보위하는 천겹만겹의 천연요새가 되여야 한.

인민군대안에 당의 명령, 지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군풍과 칼날같은 군기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당의 4대강군화로선을 틀어쥐고 당에서 제시한 필수5대표앙에 화력을 집중하여 인민군장병들을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로 키워야 한다. 오중흠7련대칭호쟁취운동만단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오중흠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백두산혼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훈련의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훈련열풍을 고조시키며 전쟁환경에 접근된 실용적훈련의 강도를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현대전의 요구와 변화된 전쟁방식들에 대처한 우리 식의 전법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모든 군인들을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 진짜배기싸움군으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 전쟁은 예고하지 않는다는것, 싸움준비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최대의 격동상태를 견지하며 일단 명령만 내리면 침략의 본거지들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수 있게 만단의 결전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최강의 무기인 군민대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군민대단결은 백두산대국의 억세 힘이고 불패성의 상징이다. 인민군대는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며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뉴대를 강화하고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휘하는데서 주동이 되고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확고히 실현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원군원민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새로운 영웅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인민들은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적극 따라배우며 우리 군대의 가장 공고한 익측이 되고 군력강화의 무진장한 저수지가 되여야 한다. 국방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은 1950년대 군자리정신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짤바람정신으로 더욱 세차게 폭발시키며 우리 식의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더 훌륭히, 더 많이 만들어내여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억척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질풍같이 내달려야 할 선봉투사는 다름아닌 우리 인민군대이다.

인민군대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드높이 총진군의 앞장에서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질로 온 사회를 선도해나가야 한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애국의 구호를 높이 들고 힘찬 공격전을 벌려 올해에도 부강조국건설의 주력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의 본보기를 창조하며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총동원하여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문명강국건설의 뿌리가 되고 돌격대가 되여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당중앙이 세계앞에 선포한 시간도 순간도 드릴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새로운 만리마속도로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야 한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백두산혁명강군의 혁명적성격은 절대불변이며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은 무진막강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기와 최고사령관기를 전두에 펼쳐 휘날리며 폭풍쳐 나아가는 천하무적의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어머니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정히 받들어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소화기내과학강좌 일군들과 의사, 간호원들은 뜨거운 인간애와 지극한 정성으로 사경에 처하였던 전투비행사의 딸을 기적적으로 소생시키는 훌륭한 소행을 발휘하였다.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지켜선 인간생명의 기사라는 본분을 자각한 강화의료일군들은 90여일동안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려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켰을뿐아니라 친혈육의 심정으로 그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줌으로써 우리 시대 보건일군들의 높은 실력과 고상한 풍모, 집단주의정신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적극 헌신하여온 강계고려약가공공장의 일군들과 졸업원들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효능높은 고려약과 건강식품을 강계시안의 기계공업부문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과 영예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당 제7차대회를 빛내이기 위한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3월말까지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한 공장로동계급은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일념안고 짧은 기간에 갖가지 고려약과 건강식품을 성의껏 마련함으로써 충정의 70일전투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하였다.

천만군민을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적으나마 이바지할 일념밑에 류경건설관리국 산하단위 로동자 최창석은 중앙계급교양관공사장에서 건설자들과 숨결을 같이하면서 로력적, 물질적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무한한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평양기관차대, 평양곡산공장, 평양일용품공장에 모시였다.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전해주는 모자이크벽화 《언제나 인민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며》가 평양기관차대에 정중히 모셔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이곳을 찾으시여 불멸의 령도자욱을 새기시며 철도운수의 강화발전을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철도현대화를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기관차대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평양곡산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가 이 단위에 모셔졌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당과류를 풍족하게 먹이시기 위하여 공장을 여러차례 찾아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생산공정의 CNC화도 실현하도록 세심히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평양일용품공장에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모자이크벽화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모시리!》를 모시는 사업에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을 바치였다.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들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 만대에 빛나리

↑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55(1966)년 2월
← 군사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0(1991)년 4월

해군함선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60(1971)년 4월

미제침략군 대형정찰기를 단방에 요정낸 비행기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60(1971)년 12월

조선인민군 련합부대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78(1989)년 4월

무장장비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75(1986)년 4월

적들과 첨예하게 대결하고있는 판문점초소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5(1996)년 11월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94(2005)년 5월

인민군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95(2006)년 4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인민군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8(1999)년 2월

백두의 혈통을 만대에 빛내이며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

조선로동당 량강도, 강원도, 황해남도대표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천만군민의 불같은 충정이 최대로 분출되고있는 벅찬 시기에 조선로동당 량강도, 강원도, 황해남도대표회가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대표회장들은 탁월한 사상과 세련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빛내이시며 백두산대국의 강대성과 필승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표회장들의 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표회장들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강성국가건설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표회들에는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백전백승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집행부가 선거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도당위원회사업이 총화되였다.

조선로동당 량강도대표회에서는 리상원 량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혁명의 발원지이고 영원한 승리의 상징인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거연히 솟아 빛나는 량강도의 당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백두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전변시키고 백두산기슭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시려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중심을 두고 도당위원회사업을 지향시켜왔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혜산시와 삼지연군을 비롯하여 각지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고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교양실들을 훌륭히 꾸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살며 투쟁하도록 하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비롯한 도안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력사주의원칙에 맞게 꾸리고 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혁명적구호문헌과 혁명유적유물들에 대한 발굴고증과 보존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태양민족의 국보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하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넋과 숨결을 뼈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량강땅을 수령결사옹위의 보루로 억척같이 다지였다.

보고자는 도당위원회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전략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들이 새로 일떠서고 공장, 기업소들의 능력확장공사와 기술개건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졌다.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대홍단군을 이룩한 감자산지로 전변시켰으며 거리와 마을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고 도예술극장, 백두산지구 체육촌 등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일떠세워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였다.

조선로동당 강원도대표회에서는 박정남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심장깊이 새기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킨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선군혁명령도업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렸으며 해마다 청년학생들의 철령과 오성산에로의 탐사행군을 정치적의의가 있게 조직진행하여 그들을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복대와 입대를 한원하고 원쑤격멸의 의지로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킬수 있은것은 우리 당의 사상중시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이 높이 발휘되는 나날에 금강군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이 수십년간 자기들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쳐 인민군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성의껏 치료해준것과 같은 소행들이 도처에서 꽃펴났으며 원산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우는 군민협동작전과정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창조본때를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로농적위군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훈련열풍을 일으켜 민간무력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져놓았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한 령도와 크나큰 은정속에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지정리의 첫 포성이 울린 강원땅이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되고 원산구두공장과 갈마식료공장이 경공업부문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으로 꾸려졌으며 문천식료공장을 비롯한 지방산업공장들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여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조선로동당 황해남도대표회에서는 박영호 황해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어 도안의 인민들이 수령영생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세상이 엎뒤번 변하고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만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억척불변의 의지를 깊이 간직하도록 하였다.

신천박물관을 비롯한 반제계급교양거점들을 훌륭하게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수령결사옹위전, 사회주의수호전에로 적극 불러일으켰으며 그 나날 한목숨바쳐 영생함을 보위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낸 도인민보안국 폭발물처리대원들과 같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이 배출되게 되였다.

당세포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충성의 당세포대렬을 늘이였으며 군중과의 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하여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강성국가건설투쟁에서 일심단결의 위력이 남김없이 떨쳐지게 하였다.

보고자는 황해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10만여정보의 토지를 규격포전으로 변모시키고 많은 농기계들을 생산하여 영농작업의 기계화비중을 훨씬 높이였으며 서해갑문—신천—강령, 용진골길을 비롯한 여러 골길공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자연기후속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게 하였다.

당의 종자혁명방침, 농업사방침, 무비농사방침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선진적인 영농방법들과 우량품종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지도에서 주관주의, 경험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도록 하였다.

보고자는 류례없이 엄혹한 환경속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이 그어준 진격의 화살표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고 강조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으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들이 토의결정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도당검사위원회사업이 총화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도당위원회 지도기관선거가 진행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보낼 대표자선거와 방청자추천이 진행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는 추대사들이 있었다.

추대사들에서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우리 당과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추대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고결한 충정의 발현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빛나는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 당과 혁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여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인민이 선택한 정의의 길을 따라 굴함없이 나아가는 자주의 신념,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파갈히 뚫고나가는 견인불발의 의지, 거창한 창조와 세기적변혁으로 대비약, 대혁신을 안아오는 완강한 공격정신이 백박치고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리론들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투쟁의 푸른불, 불멸의 지침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더욱 발전시키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시여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빛내여주시였다.

뛰여난 군사적예지와 무비의 담력, 특출한 령군술로 선군혁명위업을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수령결사옹위군,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 백승만을 떨쳐가는 천하무적의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청년강국으로 빛내여주고계신다.

추대사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천만군민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과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고 하면서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추대사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한없이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인민의 리익과 권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에 의하여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우리 나라는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으로 찬란한 빛을 뿌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며 반제자주의 기치높이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가고계신다.

추대사들에서는 전체 대표회참가자들과 도안의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철석의 의지이라고 하면서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함에 대한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는 부강조국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고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력은 세기를 주름잡는 기적창조의 원천이며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세계는 사회주의대가정의 피줄기이라고 지적하였다.

세계를 뒤흔드는 특대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있다고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함에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전체 대표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한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넘쳐 열광적인 박수와 함께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불타는 충정과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한 일군들과 당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보낼 대표자와 방청자로 선거, 추천되였다.

조선로동당 량강도, 강원도, 황해남도대표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려는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황해남도당대표회장

혁명일화총서 《김일성일화집》 제10권 출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혁명일화총서 《김일성일화집》 제10권을 출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실뿐아니라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도서에는 주체37(1948)년 1월부터 9월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국건설을 조직령도하시는 나날에 아로새기신 혁명일화들이 4개의 장에 편집되여있다.

제37장 《력사적인 건군위업의 실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무력건설선포를 앞두고 각지의 보안간부훈련소들을 련이어 찾으시여 군인들에게 정규무력건설의 의의도 알려주시고 열병식선전화와 조선인민군의 군기제작사업도 몸소 지도하여주신 일화들이 《화가들에게 맡겨주신 열병식선전화》, 《첫 군기제작에 깃든 사연들》, 《건군사에 아로새겨진 2월 8일》 등에 수록되여있다.

또한 《안찬동 산골마을이 전하는 이야기》, 《친아버지의 수업참관》과 같이 수령님께서 강계지구를 현지지도하시며 산골인민들의 생활형편도 헤아려주시고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그들의 학과학습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신 이야기도 들어있다.

제38장 《민족사에 특기할 대회합》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영구분렬책동에 대처하여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를 말기하시고 회의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바치신 로고와 남조선에서 들어온 애국적인사들에게 베풀어주신 크나큰 은정을 담은 혁명일화 《초청장을 대신한 공개서한》, 《연기된 회의날자》, 《빛나는 결실을 본 회담》, 《감격에 윤 김구와 김규식》, 《쑥섬에서 보내신 하루》 등이 서술되여있다.

제39장 《북조선민주기지를 강력히 꾸리시려》에 편집된 혁명일화 《강서군에 꽃펴난 일화》, 《분망하게 보내신 하루》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땅 방방곡곡을 찾으시며 새 조선의 민주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져주신 내용을, 《〈서해를 부탁합니다〉》, 《현대화방도를 받아안은 남포항항장》은 그이께서 나라의 해군무력강화와 남포항의 현대화를 위해 기울이신 사랑과 헌신에 대해 전하고있다.

제40장 《공화국이 창건되던 나날에》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조선적인 통일정부수립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던 나날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혁명일화 《국호에 깃든 이야기》,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날에》, 《일치한 합의를 본 헌법초안》, 《력사의 9월 9일》 등이 반영되여있다.

도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절세위인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하며 충정의 7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할것이다.

본사기자

후대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위해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자

민들레학습장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민들레학습장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24일에 진행되였다.

판계부문,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충정의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을 찾으시여 학습장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적으로 일떠선 공장에서 질좋은 학습장들이 생산되는것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보시였으면 정말로 기뻐하시였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되고 생산능력이 대단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의 교육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민들레학습장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위해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를 더 높이 울려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민들레학습장공장은 당에서 제일 관심하는 공장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장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으로 질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보내줌으로써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그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안겨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기업관리의 정보화수준과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이며 포장용기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고 철도인입선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시대의 벅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오늘의 총공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당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경축준비위원회

방글라데슈에서 결성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방글라데슈준비위원회가 5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제이즐 호쎄인 바드샤,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씨에드 아부 자파르 아흐메드, 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칼레크 자만 부이얀, 자티야당 총비서 모스타파 자말 하이더, 인민련맹 위원장 가리브 네와즈,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엠티. 하룬 아르 라쉬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계기로 경축모임, 련대성집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4돐경축

중 앙 보 고 대 회 진 행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충정의 70일전투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일대 도약기를 마련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전군절을 맞이한 천만군민은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백전백승의 최정예혁명강군을 가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백두산장군들의 슬하에서 창건된 때로부터 80여성상의 전투적행로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천하무적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을 가진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장성강화되어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받들며 혁명무력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4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인 인민문화궁전은 주체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여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무진막강한 군력으로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폭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조선인민군모표모형과 《경축 84돐》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우리 당에 충실한 혁명무장력에 영광이 있으라!》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사회주의조국에 제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무관들이 대회에 초대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리명수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극렬동지, 김원홍동지, 박림기동지, 오수용동지, 김정해동지, 김영철동지, 최부일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개회를 선언하였다.

《조선인민군가》가 주악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가 대회에서 보고 《우리 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옹위하는 불패의 혁명적당군으로 영광떨칠것이다》를 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사옹위하는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며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추켜들고나가는 혁명무력이 있기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적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인민군대를 영원히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위대한 력사를 창조해가는 70일전투의 철야전군집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4돐을 뜻깊게 맞이한 인민군장병들은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억세게 달보해갈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고 심장으로 웨친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 구호에는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뜻대로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갈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승을 떨치며 전진하는 우리의 혁명위업을 무적의 위력을 지닌 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인 인민군대가 총대로 담보하고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백두산혁명강군의 이 구호는 곧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애국, 애민의 고결한 인생관이다.

몇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을 따라배워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며 앞으로 인민군대에서 부대, 구분대나 개별적군인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데 대한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모두가 인민의 아들딸이다, 우리는 인민의 아들딸로서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에 넘쳤다.

자신의 가슴속에 끓고있는 애국의 열망,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복무정신을 백두산총대에 피처럼, 숨결처럼 부어주시며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사명을 더욱 깊이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애국, 애민의 좌우명인 이 구호는 그이께서 더욱 높이 휘날려주시는 백두산총대의 성스러운 복무의 기치이다.

조국과 인민이라는 토양속에서 나온 군대라고 하여 그 군대가 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복무의 구호를 들수 있는것은 아니다. 조국과 인민의 귀중함을 사무치게 체험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한 최고사령관의 뜨거운 심장이 이끄는 혁명군대에서만이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복무정신이 존재한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떠난 최고사령관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며 가장 위대한 수호자, 복무자가 되시여 헌신적복무의 거룩한 자욱자욱을 수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잊을수 없다. 주체102(2013)년 3월 풍랑사나운 바다길을 헤치시며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방어대들의 군인들만이 아닌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심장으로 절감하지 않았던가.

우리 최고사령관동지이시야말로 어버이장군님께서 맡기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의 위대한 수호자이시고 가장 열렬한 복무자이심을.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와 관련한 나의 사상감정을 소박한 시구로 표현한다면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이다. 나는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는 구절이 들어있는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사랑한다. 그것은 노래의 그 구절에 자기의 한몸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깃들어있기때문이다. …

그러시면서 설사 내가 숨이 져 짧은 생을 산다고 하여도 그 생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한 삶이였다고 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는것이 자신의 견해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위대한 애국, 애민의 세계, 고결한 인생관이 내 조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으로 되였고 이 땅우에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눈부신 현실을 펼쳤다.

숭엄히 안겨온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건하시고 이끌어오신 우리 혁명무력을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더욱 빛을 뿌리도록 하시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강성국가건설의 제일근위병으로 영예떨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자욱자욱이.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최고사령관의 중임으로 책임지시고 처음 맞던 전군절에도 군인들이 건설한 인민의 봉사기지를 찾으시였고 그 거룩한 자욱을 우리 군인들의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일떠서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건설장에로 이어가시였으며 오늘은 또 온 세상에 자랑할 려명거리건설을 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진정 인민의 최고사령관을 모신 진정한 인민의 군대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의 방선을 지키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가는 우리 군인들이 있는 곳 그 어디서나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이 헌신적복무의 구호가 얼마나 우렁차게 울리였던가.

이 구호야말로 백두산에 뿌리를 둔 혁명적복무정신, 전화의 나날과 고난의 행군길에 활활 불타던 희생적이면서도 헌신적인 복무정신이 백두산총대에 더 뜨겁게, 더 격렬하게 휘몰아치게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철의 신념과 의지, 가장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의 거세찬 분출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되새길 때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울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뜻깊은 8.25경축연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연설이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을 오늘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평생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면서 품들어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이 땅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이 드팀없는 결심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들과 딸을 끼고 어깨겯고 오늘도 전선길에 계신다.

자신의 온넋이고 불변의 신념인 이 결심과 의지를 그이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이 구호에 담아 우리 병사들의 심장에 심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신 사회주의조국을 선군의 총대로 더욱 떨쳐갈 하나의 열망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우리 혁명군대에 있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은 곧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위하여 복무할 드팀없는 의지이며 그것은 백두산혁명강군이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체득한 신념이고 백두산총대에 만장약한 헌신적복무정신의 중핵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백두산총대로 절사옹위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더욱 충직하게 받들어갈것이다.

본사기자 전 광 남

백두산강군의 위력 떨치는 길에서

핵탄보다 더 강한 위력

군인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하고 그 거대한 힘으로 조국과 인민을 총대로 보위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 참가자들앞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도 포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킬데 대해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포병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상포문을 일제히 열고 명중포화, 집중포화, 련속포화를 들이대여 포병들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정신력의 최강자들로 준비시키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믿는것은 그 어떤 첨단무장장비가 아니라 군인들의 정신력이라고, 무장장비위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위력은 핵탄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하시였다.

포병들모두를 오늘의 월미도해안포병들로 준비시키는데서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전승절을 맞으며 진행된 비행훈련

지난해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훌륭히 개건확장된 비행장에서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진행할것을 발기하시고 여러차례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여도 그이께서 어찌하여 전승절을 맞으며 경기대회를 진행하도록 하시였는지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였다.

뜻깊은 그날 비행훈련을 몸소 지도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경기대회를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조직한 목적은 전군이 전승세대의 영웅적투쟁정신과 본때를 굳건히 이어받아 침략의 원흉인 미제와 친미사대에 환장이 되여 동족대결, 체제대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괴뢰패당을 총대로 기어이 응절산하고야말 떨쳐의 투지에 넘쳐 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훈련혁명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였다.

비행술이 높지 못하면 용감하고싶어도 용감할수 없고 위훈을 세우고싶어도 세울수 없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쟁열, 훈련열을 최대로 폭발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실 때 그들모두는 새겨안았다.

백두산훈련열풍을 일으켜 그 어떤 전투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하는 렬렬 나는 백두산호랑이들로 준비해가는 길에 전세대들이 이룩한 승리의 전통을 빛내여가는 길이 있음을.

고귀한 칭호—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지난 3월 사람들을 놀래우며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환사로 가로막으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때에 또 하나의 웅장화려한 거리가 건설된다는 현실앞에 사람들모두가 얼마나 환희에 넘쳤던가.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 동원되였던 군인건설자들을 려명거리건설에 또다시 파견해주시겠다고 하시였던것이다. 그토록 엄혹한 정세속에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새모에 맞는 현대적인 거리를 일떠세운다는것도 기적이라고 하겠지만 그 건설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을 지켜야 할 군인들을 또다시 불러주시는것이였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속에 우리 인민군대는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라는 고귀한 칭호를 지니고 강성국가건설장들에서 위훈을 떨쳐가고있는것 아닌가.

본사기자 백 명 미

위대한 사랑의 시간

어머니당 70년력사의 마지막페지에 전화위복의 기적이라고 기록된 라선땅의 이야기, 그것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창조, 창출하는 무훈과 기적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감동깊은 이야기이다.

우리는 아담하고 정이 드는 집집의 알른알른한 방바닥에도 앉아보았고 알뜰하게 꾸려진 부엌의 수도꼭지도 틀어보았으며 불행의 주인공으로부터 만복의 주인공으로 이름이 바뀐 인민들의 진정넘친 이야기들도 들어보았다.

만복의 무릉도원은 우리에게 심장속격정을 세상에 터치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믿는것은 대포나 로케트를 비롯한 그 어떤 현대식무장장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며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도 있고 최고사령관도 있는것입니다.》

지난해 10월 하늘이 들의운 재난우에 하늘도 놀라는 기적이 펼쳐진 선경마을을 배경으로 위대한 사랑의 화폭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어깨성을 쌓고 크나큰 기쁨과 행복에 넘쳐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우리 군인들.

허나 어이 알았으랴. 라선전역에서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의 위훈을 생각하면 가슴이 후더워지고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기념사진을 찍고 가야지 그대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수만명의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무려 1시간 30분동안이나 기다리신줄을.

1시간 30분,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그것은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1시간 30분을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을 지켜낸 절사관철의 투사들, 자기 최고사령관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당이 가리킨 곳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한 우리 군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시였다.

우리 원수님 병사들을 기다려보내신 1시간 30분, 그것이 어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선전역의 병사들에게만 베푸신 사랑이라고 하랴. 그것은 전체 인민군장병들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사랑의 시간이였다.

우리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곳이라도, 항시적인 위험이 도사리고있는 곳이라도 다 찾으시여 안겨주신 사랑, 가시며 남겨두신 사랑이 하늘같은 장재도와 무도, 관문점과 오성산이 그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그 사랑이 우리 군인들에게 천만대적도 눈아래 굽어보는 담력과 배짱, 슬기와 용맹을 주었고 그 사랑이 라선땅의 전화위복과 같은 대기적을 낳았다.

천리라도 만리라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일편단심은 그 위대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있다.

숭엄한 격정속에 라선땅의 10월을 새겨보는 우리에게 불패의 근력으로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에 솟아나는 수많은 창조물들이 억년 드놀지 않는 수령보위의 성돌, 위대한 김정은절사옹위의 성벽으로 안겨왔다.

본사기자 리 금 분

우리 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옹위하는 불패의 혁명적당군으로 영광떨칠것이다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의 보고

동지들!

오늘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여든네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경사스러운 4월 25일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적혁명무력이 탄생한 민족사적대경사의 날이며 주체의 선군위업수행에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명절입니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두산총대혈통을 굳건히 고수하며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해온 주체적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습니다.

전군절을 맞으며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조선인민군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며 주체의 선군위업완성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는 전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그리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항일혁명선렬들과 인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준엄한 항일대전과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였으며 오늘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보람찬 청춘시절을 조국보위초소에서 빛내인 영예군인들과 제대군인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충정의 70일전투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백두산장군들에 의하여 창건되고 주체위업, 당의 위업과 함께 승승장구하여온 백승의 군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입니다.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만을 굳게 믿으며 당의 유일적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당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견결한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여온 여기에 주체적혁명무력건설력사의 근본특징이 있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이고 혁명의 승리라는 선군의 철리를 밝히시고 주체21(1932)년 4월 25일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자기의 진정한 혁명군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핵으로 하는 우리 군대의 투쟁전통이 마련되고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력한 주력부대로, 선군혁명의 핵심력량으로 키우시여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며 날뛰던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정규무력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선군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시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100여년의 침략전쟁력사를 자랑하는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20세기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시였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세기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한 영웅적인 군대와 인민으로, 우리 조국은 주체조선, 영웅조선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총대중시사상과 군사선행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선 당의 군대로, 전군이 간부화되고 현대화된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빛나게 실현하시여 우리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 자주의 성새로 전변시켜주시였습니다.

민족에서 자위적국방공업을 창설하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강성번영을 담보하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시였으며 조선인민군을 당의 혁명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일당백의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건설하신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최대의 업적입니다.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전군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였습니다.

천출명장의 품격과 자질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근위 서울류경수제105탱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그때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끊임없는 선군장정을 이어가시며 군력강화를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군김일성주의화로선을 제시하시고 인민군대를 위대한 수령님의 군대, 조선로동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주체의 전군사에 특기할 불멸의 공적입니다.

지난 세기 90년대의 변천된 환경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정립체계화하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였으며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만장약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우리 식의 전략전술과 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장성강화되였습니다.

미제와 괴뢰들의 가중되는 핵전쟁연습과 어리석은 불장난질을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지켜내신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백두산악같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리혜안의 예지와 뛰여난 령군술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희세의 선군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된 무쌍한 수령결사옹위군, 당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군으로 위용떨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사상과 숭고한 도덕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하는 불패의 정치사상강군,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강군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수령결사옹위의 고귀한 전통과 적들의 《무기만능론》을 사상만능론, 도덕적우월성으로 타승한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최정예혁명강군의 위상을 힘있게 과시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지켜온 오중흠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의 불길속에서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이 천백배로 다져졌습니다.

당의 유일적령군체계와 혁명적군풍이 확고히 섰으며 전군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동지부대를 이루고 군대와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사상의지적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우리 혁명무력의 최강의 힘입니다.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나가며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기발을 제일군기로 틀어쥐고 영원히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혁명군대는 이 세상에 우리 인민군대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백두의 혁명신념,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선군의 총대에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거인, 자기 최고사령관을 순결한 량심으로 따르는 도덕의리의 최강자들이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천연요새를 이루었기에 우리 당이 위력하고 당의 위업이 굳건히 고수되고있는것입니다.

조선인민군은 위력한 타격수단들로 장비되고 우리 식의 전략전술과 전법으로 위용떨치는 일당백의 무적강군입니다.

오늘 우리 군대는 《훈련혁명을 일으켜 인민군대를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만들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습니다.

전투정치훈련의 내용과 형식, 방법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명사수, 명포수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모든 장병들이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대담무쌍한 공격방식과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 진짜배기싸움군들로 준비되였습니다.

정밀화, 소형화된 각종 핵무기들과 대륙간탄도미싸일, 잠수함수중탄도탄을 비롯하여 국가방위를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은 우리 조국의 안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확고히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습니다.

총대가 약하여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통채로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던 어제날의 식민지약소국이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 주체의 핵강국으로 솟구쳐올라 제국주의반동들을 전률케 하고있습니다.

최근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대련합부대들사이의 쌍방실동훈련과 새로 개발한 반땅크유도무기시험사격,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로켓대집중화력타격연습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무진막강한 군력과 민말을 모르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기상과 본때를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는 창조와 건설의 강군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애국의 구호를 높이 들고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신화들과 전화위복의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훈을 세우고있습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만리마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으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초소에서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들을 마련하고있습니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문명강국의 터전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인민군대가 이룩한 혁혁한 성과들은 당의 명령지시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인민군장병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낳은 영웅적창조이며 당에 대한 백옥같은 애국충정과 순결한 량심과 의리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인민이 영원히 전쟁의 불구름을 모르고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군력강화와 조국수호,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위대한 승리와 전변을 안아온 인민군장병들의 전투적위훈을 우리 당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인민군대를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며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주시고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총대로 옹위하는것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우리 인민군대의 최대의 사명이며 영예로운 본분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는 말으로도 당의 령도따라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이 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새해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하시여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보위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올해에 인민군대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주체적혁명무력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우리 인민군대를 영원히 당과 수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세상이 열백번 뒤집히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금수산태양궁전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풀어나가며 조선인민군을 백두산혈통옹위의 빛나는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오중흠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발기하신 스무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군력강화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로선을 쌍기둥으로 틀어쥐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의 위업을 결사옹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강자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주체적인 전쟁관점에서 훈련의 심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군대의 모든 장병들을 그 어떤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는 현대전의 능수, 일당백의 싸움군, 백두산호랑이들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선군혁명의 전도와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청년군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모든 청년군인들을 총대와 함께 청춘시절을 빛내여나가는 청년강국의 핵심골간,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통일대전의 맹장들로 억세게 키워야 하겠습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본보기, 기수답게 공농사, 수산, 축산의 3대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인민군대의 후방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군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적극 개선하여 전군의 모든 중대와 대대를 당중앙위원회 뜨락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 정든 고향마을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심장속에 새겨안고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주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며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주체무기,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질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에 적극 이바지하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튼튼히 다져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전역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충정의 7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고 다가오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미제는 전략무기들을 남조선에 꺼리낌없이 끌어들여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이 땅우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습니다.

미제가 핵을 저들의 독점물로 여기며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였으며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으로 되고있습니다.

만약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노리는 핵도발망동을 계속 부린다면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은 그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이,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도 없이 하늘과 땅, 해상과 수중에서 가장 최절한 징벌의 선제타격을 가할것입니다.

적들은 수령결사옹위를 최대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타격에는 자비가 없으며 일단 시작하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할 때까지, 침략과 악의 근원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중단없이 련속적으로 진행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백전백승의 선군령도가 있고 당중앙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며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것입니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천하무적의 강군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반향

불패의 군력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속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의 크나큰 영광이다.

김정은동지께서 선군정치를 빛나게 계승하시기에 조선은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고있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낳게 하는 무한대한 힘으로 되고있다.

뛰여난 군사적예지와 비범한 령군술을 지니신 위대한 백두령장을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수리아 다마스꼬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싸메르 말룹은 조선이 강대한 사회주의보루로 빛나고있는것은 필승의 군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정은각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모신것은 조선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행운으로 된다, 국제사회는 령장의 풍모를 완벽하게 체현하신 그이를 가장 걸출한 최고사령관으로 칭송하고있다, 탁월한 선군령장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고 격정을 터놓았다.

재로씨야동포 정일심은 대를 이어 누리는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은 우리 민족이 받아안은 제일 큰 행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속하였다.

김정은원수님은 백두의 기상과 무비의 담력, 드센 배짱을 지니신 군사의 영재, 천하제일명장이시다.

그이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방에 빛을 뿌리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혁명령도사는 변함없이 흐르고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천하무적의 강군이 있어 우리는 영원무궁할 조국의 미래를 락관한다.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 최홍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드놀지 않는 신념을 간직하고 반공화국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해가고있다.

백전백승의 자랑찬 전통과 일당백의 용맹, 무진막강한 전투력을 갖춘 인민군대가 지켜선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는 영원히 금성철벽이다.

백두의 전설적명장들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온 군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일당백혁명강군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 최홍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드놀지 않는 신념을 간직하고 반공화국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해가고있다.

백전백승의 자랑찬 전통과 일당백의 용맹, 무진막강한 전투력을 갖춘 인민군대가 지켜선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는 영원히 금성철벽이다.

수령결사옹위는 조선인민군의 고유한 전통

백두산천출위인들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80여년의 장구한 나날 수령결사옹위를 숭고한 사명으로, 응당한 본분으로 간주하여온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찬 전통을 여러 나라 신문, 방송들이 널리 찬양하고있다.

에질트신문 《알 마싸이야》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인민군의 력사는 곧 수령결사옹위의 력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자!》라는 구호를 들었다. 그들이 창조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해방후 정규무력으로 발전된 조선인민군에 있어서 귀중한 전통으로 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은 조국은 곧 김일성장군님의 품이며 그이를 결사옹위하는것이 조국을 지키는 길이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들고 싸웠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전후에도 변함없는 조선인민군의 생명선이였다.

라오스국가라지오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혁명의 첫 세대인 항일혁명투사들이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든것은 그들이 수령을 떠난 혁명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수령을 결사옹위하는데 혁명군대의 최고사명, 신성한 의무가 있다는것을 투철한 신념으로 간직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 신념은 조선인민군의 사상정신적위력의 기본핵을 이루고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된 군대가 있기에 사회주의조선이 그처럼 강한것이다.

인디아신문 《인디아 유럽 뉴스 앤드 인포메이숀 뷰로》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의 수령결사옹위는 령도자의 신변만 보위하는것이 아니며 령도자의 정치사상적권위를 결사옹위하고 그이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최고사령관의 뜻을 받들어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한편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도 기적을 창조해나갔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이 구호에는 최고사령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며 최고사령관의 구상과 의도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려는 인민군군인들의 결사의 각오가 어려있다.

오늘 조선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공장들과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는것은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결실이다.

우간다라지오방송은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사회주의와 혁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수호정신으로 무장되여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 싸우려는 각오, 령도자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하는 정신을 지닌것이 오늘 조선인민군의 참모습이다고 찬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공동구호에서)

불굴의 혁명적신념을 벼려주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

지금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당 제7차대회를 향한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살책동,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소동과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지만 최후승리에 대한 천만군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혁명적신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며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행도자와 운명을 같이하려는 결사의 각오이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오고 설사 지구가 깨여진대도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굳건한 믿음, 광휘로운 앞날에 대한 열정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질풍노도와 같이 진격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이 준엄한 폭풍을 헤치며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었고 오늘도 일관성있게 계승되여나가는 근본비결은 혁명적신념의 불변성, 계승성에 있습니다.》

혁명의 전진과정은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뚫고나가는 과정이다.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는가, 수치스러운 패배자가 되는가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은 혁명적신념이다. 혁명투쟁에서 발휘되는 혁명가들의 견인불발의 의지도, 불굴의 정신력도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에서 우러나온다. 혁명은 신념이고 신념이자 곧 혁명이다.

혁명가의 신념은 혁명의 길에 나섰다고 하여 저절로 생겨나는것도 아니고 한번 간직하였다고 하여 영원한것도 아니다. 가장 굳건한 혁명적신념, 세월의 강풍속에서도 변색을 모르는 신념은 그 사상정신적기초의 공고성에 달려있다. 지심깊이 뿌리박은 나무가 모진 광풍에도 흔들림없듯이 신념의 기둥이 굳건한 사람들에게는 대세에 따라 흔들리거나 난관앞에 주저앉는 일이 추호도 있을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기둥은 준엄한 항일전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조선혁명의 깊고도 억센 뿌리가 내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이 위대한 혁명정신은 인간완성의 참된 교과서, 백승의 진로가 밝혀지게는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는 강의하고 혁명적인 인민으로 자라나게 되였고 우리 조국은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의 나라, 영웅조선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되였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세대와 년대는 끊임없이 바뀌고있다. 그러나 조선혁명의 전력사를 관통하고있는 백두의 혁명정신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영원한 신념의 기둥으로 억척같이 뿌리내리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천만군민을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키우는 근본원천이다.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 이것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의 근본핵이다.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은 삶의 태양이시였고 조선의 미래이시였으며 승리의 기치이시였다.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것은 오직 하나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되며 수령님을 보위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신념이였다. 이런 신념으로 온넋을 불태운 그들이였기에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여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옹위하였으며 죽음앞에서도 굴함없이 《김일성장군만세!》,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칠수 있었던것이다. 수령옹위의 한길에서 끝까지 변치 않는 혁명선렬들의 신념의 맹세가 그대로 백동치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마루산의 글발은 영원한 혁명의 메아리가 되여 오늘도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높이 추켜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에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항일의 그 정신이 그대로 맥박치고있으며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타오르고있는 당정책옹위전의 거세찬 불길에는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정신이 체현되여있다. 천만군민이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자기 운명의 명줄을 잇고 령도자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헤나가는 수령결사옹위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이다.

지금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의 기둥을 뽑아버리려고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고있다. 그러나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영원하며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겹만겹으로 뭉친 우리의 수령결사옹위의 성새는 그 어떤 핵폭탄으로도 허물수 없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자강력제일주의로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강위력한 보검이다.

자주의 신념, 민족자존의 정신력은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는 생명선이며 기적창조의 원동력이다.

지난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에게는 공고한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었고 남의 도움을 청할데도 없었다. 그러나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주체의 신념, 자력자강의 정신을 안고 무장투쟁에 필요한 수많은 군수물자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였으며 맨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내는것과 같은 기적을 창조하였다. 백두밀림속의 병기창에서 울리던 그날의 마치소리는 우리 조국의 힘찬 맥동이 되여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주체강국의 위대한 시대를 펼쳐놓았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자력자강의 정신을 민족번영의 강위력한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조선의 힘, 조선의 기상, 조선의 속도로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자!》,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나가라!》, 이 전투적구호들에는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기어이 이 땅우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민족자존의 기상이 력력히 비껴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와 같은 민족사적인 특대사변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힘, 허리띠를 조이며 다지고다져온 막강한 주체공업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다. 우리의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단 몇달동안에 첨단과학기술을 요구하는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개발생산할수 있은것도,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계급이 가방용천생산공정을 완전히 국산화된 생산공정, 탕에서 바라는 우리 식 생산공정으로 훌륭히 꾸려놓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 근본비결도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한데 있다. 70일전투와 더불어 세계를 놀래우는 눈부신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남의 떡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행복의 미래를 앞당겨오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가 안아온 귀중한 산물이다.

자주의 넋과 기상, 자강력을 명줄처럼 이어받으며 전진하여온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선택이란 있을수 없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국제기구까지 발동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와 봉쇄의 올가미를 조이려고 발악해도 백두밀림에서 뿌리내린고 력사의 돌풍속에서 억척으로 다져진 우리의 자력자강의 위력은 무한대이며 최후의 승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굴할줄 모르는 신념과 의지로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원동력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우리의 혁명선렬들이 헤쳐온 투쟁행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험난한 가시덤불길이였고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길이였다. 그러나 항일유격대원들은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으로 마지막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최생적으로 싸워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다. 이들이 발휘한 혁명정신은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주고도 살수 없는 가장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이며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악랄한 군사적도발과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를 수없이 겪어왔다. 이 기나긴 로정에서 우리 인민이 순간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언제나 곧바로 줄달음쳐올수 있은것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필승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한데 근본요인이 있다.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미제국주의와의 판가리결사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세계전쟁사에 특기할 불멸의 위훈을 아로새길수 있은것도, 지난 세기 90년대의 풍파사나운 시련속에서 우리 인민이 굶어쓰러지면서도 사회주의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험난한 길을 꿋꿋이 헤쳐올수 있은것도 우리의 앞길에 백두의 붉은기가 승리의 기치로 세차게 나붓겼기때문이다.

사상적혈통, 신념의 피로 이어지는 혁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그 어떤 광풍이 몰아치고 천만대적이 달려든다 해도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우리 혁명의 불패성의 상징인 백두의 혁명정신을 신념의 기둥으로 안고 사는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오 수 경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언해설

《신념과 의리로 하는것이 혁명이며 신념과 의리로 하여 빛나는것이 혁명가의 인생행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명언에는 신념과 의리가 있어야 혁명도 할수 있고 인생도 참답게 빛내일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신념이 강하고 의리가 깊은 사람을 존경하고 내세웠으며 백옥과 푸른 소나무, 곧은 참대를 그 상징으로 삼았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사생결단의 길이다. 한생을 혁명에 다 바칠 굳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선 혁명가에게 있어서 투철한 신념과 의리는 인생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핵으로 된다.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게 하는 생명선이다.

혁명적신념은 수령이 령도하는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신,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의지가 결합된 사상의식이며 혁명적의리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들사이에 맺어지는 숭고한 사랑과 보답의 뉴대이다.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에 뿌리를 두고있기에 수령에게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이 이끄는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끝까지 투쟁하게 한다.

항일무장투쟁시기 1941년 봄의 총격적인 정세변화는 혁명가들이 어떤 신념과 의리를 가지고 혁명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중요한 계기였다. 당시 쏘일중립조약체결로 하여 혁명의 전도를 암담하게 어기며 혁명과 동지들을 배반하고 도주한 지갑룡이는 신념과 의리를 저버린자였다. 그러나 김익현, 김명록동지들은 사령관동지만 계시면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 죽어도 사령관동지곁에 가서 죽겠다는 투철한 신념과 의리를 지니였기에 굶어쓰러지면서도 기어이 사령관동지의 품에 안겨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었다. 수령을 받들어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것이 항일혁명투사들이 뼈와 살에 조아박은 억척불변의 신념이였다.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험난한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갈 때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력사에 관통되여있는 철리이다.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혁명가의 한생을 참된 삶으로 빛내여주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혁명적신념은 수령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이루어지고 공고화된 사상적결정체이며 혁명적의리는 수령에 대한 충정과 보답으로 일관된 정신적기둥이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수령을 받들고 옹호보위하기 위한 투쟁보다 더 고귀한 삶은 없고 이 길에서 발현되는 신념과 의리보다 더 고결한 사상감정은 없다.

항일혁명투사 최현동지는 백절불굴의 신념과 혁명적의리를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을 따라 준엄한 항일전쟁과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새 조국건설과 사회주의건설투쟁, 우리 혁명의 전위풀을 보위하는 투쟁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인 참된 혁명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잊지 못해하신 연형묵동지도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지니고 평온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참다운 혁명전사이다.

우리 혁명의 장구한 로정에는 당과 수령께 다진 맹세를 지켜 인생의 값높은 삶을 빛내여온 운명무명의 신념의 인간, 의리의 인간들이 수없이 많다. 혁명가는 인생의 시작도 끝도 당과 수령에 대한 신념과 의리로 불타야 한다는것이 우리 혁명력사가 새겨주는 고귀한 진리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노래 《동지애의 노래》, 《인생의 영광》을 힘차게 부르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운명의 피줄을 굳게 잇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김 철 룡

혁명가의 신념과 영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목숨바쳐 지켜야 할 혁명가의 가장 고상한 품성입니다.》

주체의 혈통을 꿋꿋이 이으며 줄기차게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장구한 로정에는 투철한 수령관, 절대불변의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한생을 당과 조국을 위해 바친 수많은 혁명전사들의 영웅적위훈이 아로새겨져있다.

수령결사옹위의 견결한 투사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불러주시며 끝없이 아끼고 사랑해주신 항일혁명투사 김일동지는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드놀지 않고 한본새로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든 고지식한 혁명가, 참된 충신의 전형이였다. 그는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지키고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언제나 칼날같이 날카롭고 추호의 양보도 모르는 무서운 맹수였다.

주체45(1956)년 4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중요한 정책적문제를 토의하는 자리에서 한 종파분자가 인민생활을 제멋대로 빗대며 당정책을 시비하였을 때였다. 김일동지는 즉석에서 그자의 궤변에 숨겨진 흉심을 발가놓고 된타격을 가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적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였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의 김일동지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그는 나쁜놈들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제때에 타격을 주어 우리 당과 당정책을 지키는데 큰 공을 세운 혁명가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높은 당성을 지닌 진짜배기혁명가

우리 장군님께서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내세워주신 리인모동지는 조선로동당원들이 지닌 혁명적신념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준 참다운 혁명가였다.

중세기적인 고문과 갖은 회유기만, 비렬한 모략과 끈질긴 위협공갈속에서 참기 어려운 굶주림과 추위를 이겨내며 해빛 한점없는 먹방에서 하루이틀도 아닌 수십년간을 견디여낸 그자체가 기적이였다.

해방후 당의 품속에서 5년밖에 살지 못한 리인모동지가 어떻게 그처럼 어려운 정신육체적고통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될수 있었는가. 그것은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과 당기앞에서 다진 당원의 맹세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였기때문이다.

하기에 그는 옥중에서 자기의 생일을 우리 당 창건일인 10월 10일로 정하고 해마다 이날이 오면 자신의 당생활을 스스로 총화하였고 당원의 량심과 혁명적신념을 지켜 끝까지 싸웠던것이다. 혁명전사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은 그를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내세워주고 인생의 모든 영광을 가슴가득 안겨주었다.

오늘도 리인모동지는 절대불변의 혁명적신념을 간직한 사람은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는 인생의 철리를 가르쳐주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고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되는것은 아니다. 수령을 알고 수령의 참된 전사가 되였을 때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

짧막한 이 한마디속에 한생을 수령결사옹위로 빛내인 김일동지의 인생관이 집약되여있다. 그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한 수령결사옹위의 견결한 투사로 오늘도 후대들의 심장속에 살아있다.

혁명적구호문헌을 목숨바쳐 지켜낸 인민군군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고있다. —함경북도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적음

혁명사적비 《만대에 빛나라, 인민사랑의 선군길이여》

강원도 판교군에 건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적비 《만대에 빛나라, 인민사랑의 선군길이여》가 강원도 판교군의 동점령기슭에 건립되였다.

이곳에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천만로고를 다 바치시며 선군장정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인민보안원들과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련관단위, 강원도안의 일군들, 건설자들,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충정의 마음을 안고 천연화강석을 다듬어 사적비를 훌륭히 건립하였다.

준공식이 22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인민보안부, 관계부문 일군들과 보안원들,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건설자들, 판교군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먼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적비에 꽃타발들을 진정하였다.

인민보안부장 최부일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동점령기슭에 혁명사적비를 정중히 모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온 나라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열화같은 충정심의 분출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이 동점령기슭에도 뜨겁게 어려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주체88(1999)년 10월 6일 이른새벽 최전연부대들을 찾아 하루해가 저물도록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편한 바위우에 앉으시여 길가는 인민들을 바라보시며 오직 당만을 굳게 믿고 고난의 언덕을 신심높이 넘어가는 우리 인민이 하루빨리 락원의 행군을 하도록 이 나라 높은 령, 이 강산 험한 령을 다 넘자는것이 자신의 의지이라고 교시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 선군길이 아무리 어렵고 간고하여도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념원인 조국통일의 길로 굳건히 이어나가실 불같은 맹세를 다지시고 또다시 먼길을 떠나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끊임없이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이 있어 우리 조국은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빛나는 승리만을 떨쳐올수 있었으며 백두산대국의 천만년미래가 억척같이 담보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성스러운 태양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숭고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인민보안원들이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과 사회주의제도의 안전, 인민의 생명재산을 믿음직하게 보위함으로써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판교군안의 인민들과 인민보안원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적비를 철저히 보위하고 정중히 관리하며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충정의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들을 마련하며 세상을 놀랬다놓는 대중적영웅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혁명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듣고 비를 돌아보았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파키스탄전국준비위원회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파키스탄전국준비위원회결성식이 최근 카라치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파키스탄의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조선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 자베드 안싸리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2017년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5돐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탄생 7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김일성주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나라의 해방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걸출한 수령이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수령의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조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신 탁월한 사상리론가, 백전백승의 령장이시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드주상급상 니싸르 아흐메드 쿠로가, 부위원장들로 전 국회상원의원 아마르 지트와 기업경영대학 학부장 샤히다 위자라트가, 공동서기장들로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 자베드 안싸리와 라호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아크바르 알리 한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2017년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계기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출판보도물에 적극 소개선전하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적국방공업의 창설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정천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적음

수령결사옹위정신,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하자

주작봉마루에 우리 혁명무력의 첫 세대 지휘관들이 있다

뜻깊은 전군절을 앞두고 우리는 주작봉마루에 올랐다.

한줄기 바람도 항일혁명렬사들의 불멸의 위훈을 속삭여주고 나무 한그루도 투사들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주작봉마루.

오늘도 항일대전의 포연서린 혁명의 붉은기앞에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우러르는 항일혁명렬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로 그들이 우리 혁명무력의 첫 세대 지휘관들이였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그들의 업적으로 보나 투쟁정신으로 보나 우리 인민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본받아야 할 혁명가의 모범이며 영웅의 구감입니다.》

우리의 귀전에 안도현 소사하의 토기점골등판에서 조선의 주체적인 첫 혁명적무장력의 탄생을 선포하신 빨찌산 김대장을 우러러 목청껏 환호하며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던 그날의 발구름소리가 들려오는듯싶고 가렬처절했던 격전장들마다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돌격 앞으로!》라고 웨치던 투사들의 불굴의 모습도 눈앞에 안겨오는듯싶었다.

조선인민군의 첫 세대 지휘관들중의 한사람이였던 항일혁명투사 최춘국동지, 그는 투철한 수령관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닌 우수한 지휘관이였으며 걸출한 혁명가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사단장이였던 최춘국동지는 남진의 길에서 안동해방전투를 지휘하다가 그만 중상을 당하게 되였다. 사단참모장이 최춘국동지의 곁으로 달려왔을 때에는 이미 그의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였다. 가까스로 눈을 뜬 최춘국동지는 옆에 있는 군의에게 자기의 생명을 5분만 더 연장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안동의 적을 완전히 포위섬멸할 자기의 작전적의도를 참모장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내 대신 동무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해줄것을 부탁하오.》

이것이 최춘국동지가 최후의 순간에 남긴 부탁이였다.

생명의 마지막순간에도 수령의 명령집행을 먼저 생각한 항일혁명투사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전선사령부 참모장으로서 어버이수령님의 반공격명령을 높이 받들고 적들의 군사전략상 주요거점들을 해방하는 전투들을 능숙하게 조직지휘하며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시른두살에 장렬하게 전사한 강진동지, 조선인민군 남해방여력단 문화부려단장으로서 적들의 해안상륙기도를 짓부시기 위한 전투들을 능숙하게 지휘하여 커다란 공적을 세웠으며 적들과의 치렬한 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조정철동지, 전쟁초기에 남진의 앞장에서 수많은 전투들을 승리적으로 조직지휘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락동강제선까지 불아내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는 서울방어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을 능숙하게 벌려 적들의 발악적공세를 좌절시키고 전국을 전환시키는데서 커다란 위훈을 세운 최광동지,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받들고 직접 땅크를 타고 선두에서 서울로 돌입하여 공화국기를 휘날리였고 대전해방전투, 락동강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류경수동지,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유격전의 소문난 지휘관으로 성장하여 공격전과 적후투쟁, 고지방어와 해안방어 등 싸움마다에서 맞다든 적들을 통쾌하게 족쳐대던 최현동지…

항일혁명렬사들의 반신상을 돌아보며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자신께서는 대대장까지는 다 파악하고있었다고, 그때 대대장까지는 거의다 자신과 함께 항일무장투쟁때 총잡은 사람들이였기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적들과 용감히 싸울것이라고 믿었다고 뜨겁게 하시던 최고의 교시를 되새겨보았다.

그렇다. 우리 혁명무력의 첫 세대 지휘관들은 항일의 혈전장에서 수령결사옹위를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로 심장에 새아박은 투사들이였다.

바로 항일의 투사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무적의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새겨안고 가렬처절한 싸움의 앞장에 섰기에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할수 있었으며 보병총과 권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통쾌하게 타승하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슬하에서 항일혁명렬사들의 숭고한 넋과 투쟁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인민군대는 준엄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의 빛나는 련전련승을 안아온 력사와 더불어 얼마나 많은 참된 지휘관들의 모습을 아로새기였던가.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동지들을 구원한 김광철영웅,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보위한 길영조영웅, 새 세기의 첫 영웅인 김기봉동무…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경축하여 진행된 열병식대오의 선두에서 《유격대행진곡》의 군악에 발맞추어 항일무장투쟁시기종대가 지축을 울리던 광경이 우리의 눈앞에 생생히 안겨왔다. 그 열병대오를 보면서 온 나라 천만군민은 천출위인들의 품속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는 항일혁명렬사들의 모습을 감동깊이 새겨보았으며 영웅적인 조선인민군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을 알고 총대의 귀중함을 뼈절게 체험한 항일투사들, 수령결사옹위, 대중적영웅주의를 제일가는 군풍으로, 애국의 바통으로 넘겨준 우리 혁명무력의 첫 세대가 있어 오늘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는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총대로 믿음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영웅한 인민군장병들이 있기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70일전투의 승리도 확정적이라는 신심을 안고 우리는 주작봉마루의 항일혁명렬사들, 우리 혁명무력의 첫 세대 지휘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본사기자 조 경 철

군민은 한마음 한뜻

지구상에서 가장 로악한 제국주의와 맞서 백승의 기적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군민대단결!

항일의 피바다와 전화의 불바다를 건너 오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끄떡없이 력사의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습은 싸우는 조선의 기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진정한 동지적관계로 굳게 결합되고있으며 온 사회에 군민일치의 미풍이 차넘치고있습니다.》

위대한 단결의 력사 우에 추억도 많다.

피어린 항일대전의 나날 유격대와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하던 근거지의 총포성과 전화의 나날 죽음도 각오하고 락동강을 함께 건느던 인민군병사들과 배사공로인의 모습과 더불어 오늘날 세상을 놀래운 라선땅의 전화위복의 기적은 군민대단결의 힘으로 만난시련을 헤쳐온 우리 혁명의 한 축도이기도 하다.

지금도 라선시 선봉지구 인민들은 감회깊이 추억하고있다.

한차례의 전쟁을 치른것과도 같은 참혹한 폐허우에서 그들의 눈에 제일먼저 비낀것은 뿌리채 뽑혀 쓰러진 소나무들을 일으켜세우던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이였다.

겨울에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어떤 광풍에도 변색을 모르는 신념의 인간이 되려는 마음을 안고 자기들의 손으로 지리에 한그루한그루 정성들여 심어가꾸었던 소나무들, 한번 옮겨심어도 살리기 힘들다는 그 소나무들이 뿌리를 통채로 드러낸채 쓰러졌을 때 그것을 살릴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몇이였던가.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신념의 기둥을 억척으로 세우듯이 소나무들을 일으켜세웠고 군인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은 인민들이 그들과 마음을 합쳐 소나무들을 모두 살려내고야말았다.

군민이 단합된 힘으로 이룩한 첫 복구성과인 수백그루의 푸른 소나무들, 그것은 이 땅에 뿌리내린 나무이기 전에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굳건히 뿌리내린 필승의 신념과 의지였으며 군민대단결의 억세인 기상이였다.

그 신념과 의지로 이룩한것이 어찌 라선땅의 전화위복의 기적뿐이랴.

최근년간 조국강산을 진감시키며 련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들도 그 어느것이나 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자랑찬 산물이 아니던가.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하여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솟아오른 문명의 새부들에도 용감한 선구자가 되고 믿음직한 익측이 되여 조선속도를 창조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습이 어려있다.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앞에서도, 사면팔방으로 조여드는 제재의 포위환속에서도 끄떡없는 전인민적단결, 전국가적단결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혁명의 초석으로 더욱 굳게 다져주시는 군민대단결이며 그 위력으로 백전백승만을 떨치는것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조선의 힘인것이다.

수령의 사상과 뜻으로 혈연의 피줄을 잇고 혁명의 길에서 생사를 함께 하여온 우리의 천만군민은 조국의 존엄과 운명을 걸고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인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끝까지 지켜갈것이며 원쑤들과의 총결사전의 시각이 온다면 군민대단결의 위력, 전민항쟁의 위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승 철 진

나누는 정, 오가는 자랑

홍원군 읍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적군인가정들을 적극 내세우고 혁명적군인가정, 총대가정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합니다.》

3년전 가을 어느날이였다.

여느때없이 환한 얼굴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던 리달규전쟁로병은 초인종소리가 울리기 바쁘게 집문을 열었다. 그러자 별을 단 남녀군관의 모습이 나타났다. 순간 로병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그들은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가하였던 맏아들네 자식들인 리진혁, 리진아였던것이다.

《장하다, 장해. 너희들을 보니 내가 10년은 더 젊어지는것 같구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대회에 참가한 손자, 손녀의 미덥고 대견한 모습을 이윽토록 여겨보는 로병의 마음은 더없이 감개무량했다.

축축히 젖어든 로병의 눈앞에는 문득 조선인민군입대증을 받아안고 달려왔던 진혁이의 모습이 어제런듯 안겨왔다.

소년단넥타이를 날리던 그 시절부터 새로 나온 노래를 할아버지와 함께 부르기도 하고 자기가 지은 자작시를 읊기도 하는 맏손자에게 로병은 각별한 애정을 기울이군 하였다. 그래서인지 어릴적부터 할아버지를 무척 따르던 그는 부모를 따라 먼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할아버지집으로 혼자서도 곧잘 찾아오군 하였다. 이런 기특한 맏손자가 학교졸업을 눈앞에 두었을 때 리달규로병은 은근히 조바심도 없지 않았다.

(학교를 졸업하면 곧 군대에 나가겠다던 그애 결심이 혹 달라지지 않았을가. 애가 공부에서도 학교적으로 손꼽힌다고 하지 않았는가. …)

하지만 로병은 입가에서 맴도는 그 말을 맏아들에게 굳이 꺼내지 않았다.

언제나 총대와 애국을 하나로 잇고 사는 가풍속에 자라난 가문의 맏손자가 틀림없이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길을 택하게 되리라는 믿음에서였다.

바로 그 속깊은 기대와 소망을 후련히 풀어주며 조선인민군입대증을 가슴에 품은 미더운 손자가 로병의 넓은 가슴에 안기였을 때 눈시울젖어들게 하던 그대견함을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으랴.

그후 진혁이의 뒤를 이어 진아가, 그다음엔 둘째네 진성이, 진범이가 총대가문의 6번째, 7번째 입대증을 안고 할아버지에게로 달려왔다.

언제인가 초소에서 맏손자가 보내온 편지에는 이런 글줄이 씌여져있었다.

《…할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것은 총잡은 병사의 량심이라고. … 그 말씀의 참의미를 복무의 나날에 폐부로 느낄수록 한생을 총과 함께 걸어갈 저의 결심은 더욱 굳어집니다.》

그날의 맹세대로 이렇듯 로병앞에 의젓하게 나선 오누이군관의 모습이 어찌 미덥지 않을수 있으랴.

그날 령장우에 빛나는 별들을 오래도록 쓰다듬는 로병에게 손자, 손녀들은 말하였다.

《조국이 맡아준 이 별들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성스러운 복무의 길에서 더욱 빛내이겠습니다.》

결사옹위의 별!

그렇다. 이것은 리달규로병가정만이 아닌 조국수호,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 최대의 가풍으로 이어가는 이 나라 수천수만의 가정들마다에서 늘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별, 영원한 승리의 별이다.

장 정 철

‖로병가정에 늘어나는‖ 수호자의 별

중구역 중성동 35인민반 리달규로인의 가정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원호하는것은 결국 자기 아들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것입니다.》

얼마전 우리가 인민군대원호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홍원군 읍협동농장을 찾았을 때였다.

마당에 쌓아놓은 원호물자라는 글자가 새겨진 여러개의 지함들이 눈에 띄였다.

전군절을 맞으며 인민군대원호사업을 통이 크게 하려고 한다며 관리위원장 손희경동무는 우리를 관리위원회로 이끌었다. 그곳에서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편지를 정성껏 쓰고 있었다.

《전군절축하인사도 함께 후방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초급당일군인 김선숙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기쁨속에, 웃음속에 인민이 정성껏 쓰는 편지, 우리는 그들이 쓰고있는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았다.

병사들에게 보내는 축하의 인사며 초소의 아들딸들에게 터놓는 가지가지의 고향자랑이 편지에 담겨있었다.

충정의 70일전투기간 농장이 군적으로 모든 사업의 앞장에서 달리고있는 소식이며 영농공정별기술적지도를 앞세워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자랑,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온실에서 많은 남새를 수확하여 농장의 살림살이가 나날이 꽃펴나는 긍지…

그속에는 이런 내용도 적혀있었다.

《70일전투기간 우리 농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살림집들을 번듯하게 다시 꾸렸습니다. 새 집처럼 환한 집에 들어서며 우리 농장원들은 농장일을 많이 해주고도 늘 우리들의 성의를 마다하던 군인동지들이 오면 덩실한 집에서 푹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 대접하겠다고 너도나도 다짐했습니다. …》

어찌 그뿐인가. 전쟁로병 박순규할머니는 자기를 위해 친혈육의 정을 다하는 농산제3작업반장 최선영동무에 대한 소행을 적으며 혁명의 전세대들을 아끼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사람들의 손길에 떠받들려 어제날의 화선병사는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있다고 덧붙여썼다.

김선숙동무는 초소와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것이 하나의 생활기풍으로 되였다고, 벌써 전군절을 앞두고 병사들의 편지가 수많이 날아왔다고 자랑하였다.

군인들이 정성껏 만들어보내준 활창대며 비둘대를 비롯한 영농물자들이 올해농사차비에서 큰 몫을 했다는 농장소식을 듣고 한자두자 쓴 우리 초소군인들의 회답편지며 성의껏 준비한 원호물자를 보내주는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농장후방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담은 병사들의 편지, 고향의 아들딸들이 군사복무를 잘하고있다고 전한 초소의 지휘관들의 편지…

고향을 그리며 저 멀리 최전연초소에서 보내온 병사들의 편지도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초소로 떠나는 우리들에게 혁명군가를 적은 수첩을 안겨주며 군사복무를 잘하라고 그리도 절절히 당부하던 고향사람들을 잊을수 없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를 잊지 않고 꼭 경애하는 원수님의 참된 병사가 되겠습니다.》

…

구절마다에 화목한 한식솔의 정이 뜨겁게 흐르는 군민의 편지!

바친 정 없고 나눈 사랑 없다면 어찌 이런 아름다운 편지이야기, 혈연의 화목이 펼쳐질수 있으랴.

나누는 정, 오가는 자랑, 그속에 군민의 뜨거운 마음이 흐르고 군민대단결의 미풍이 활짝 꽃펴나는것이니 정녕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지켜가는 우리 초소, 우리 후방은 언제나 금성철벽인것이다.

본사기자 오 은 별

조국보위초소에서 온 소식으로 기쁨의 웃음 넘쳐난다.
—혜산시 혜강동 20인민반 김경복동무의 가정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70일전투목표 3배로 넘쳐 수행

강서분무기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강서분무기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70일전투기간의 분무기생산계획을 불과 29일만에 해제낀 기세로 더 큰 앙양을 일으켜 1만대이상을 생산하여 전투계획을 3배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배인 리효욱, 초급당비서 최동이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공장안의 모든 전투원들이 오늘의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도록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언제나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갔다.

교대간 사회주의증산경쟁분위기를 최대로 고조시켜 따라앉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이 더욱 활기있게 벌어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기술자들은 형타식힘장치부분을 개조하여 분무기생산에서 기본을 이루는 농약통생산시간을 종전보다 단축하였다.

또한 원자재를 극력 쓰지 않고 회수자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분무기생산에 드는 원가를 보다 낮추었다.

로동자들도 설비의 조작방법을 개선하고 정비와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기대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걸었다.

결과 지난 시기에 비하여 하루생산량이 평균 2배이상 뛰여오르고 그 질도 훨씬 높아졌다.

온 공장에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속에 1만대이상의 분무기를 생산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능률높은 분무기들이 사회주의협동벌들에 꽉 차넘치게 하겠다는 배짱과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 불타는 열의안고 철야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가고있다.

박 명 진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당 제7차대회를 빛내일 일념안고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원산구두공장에서—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당의 목소리와 조국의 벅찬 현실을 전하며 열일곱해

라선시체신운영국 아래단위 텔레비죤중계초소 중계공 민영희동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라선시 선봉지구에 가면 높은 산등성이에 우뚝 솟은 한채의 건물을 볼수 있다. 라선시체신운영국 아래단위 텔레비죤중계초소이다.

여기에는 주민들에게 당의 목소리와 조국의 벅찬 현실을 전하며 자기 맡은 혁명초소를 묵묵히 지켜가는 한 녀성이 있다. 그가 바로 이 텔레비죤중계초소 중계공 민영희동무이다.

민영희동무가 남편을 대신하여 중계공이 될것을 결심한것은 지금으로부터 17년전이였다. 어렴풋 고난의 시기 텔레비죤화면을 통해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뵈올 때면 힘과 용기가 절로 난다고 하면서 산중초소에까지 올라와 남편의 손목을 잡고 고맙다고 인사하던 마을사람들의 모습이 되새겨졌던것이다.

민영희동무의 마음속에서는 앓는 남편을 대신하여 누군가 이 중요한 초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그는 시에서 새 중계공을 보내자면 일정한 시일이 걸려야 한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텔레비죤중계는 한시도 중단할수 없지 않는가. 내가 이 초소를 지키자.)

청진광산금속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한 단위에서 설계원으로 일한 경력밖에 없는 그에게 있어서 텔레비죤중계공일은 생소하였다. 중계설비들을 파악하고 다루며 인적없는 산중초소를 지키자니 헐치 않았다. 게다가 남편의 병은 날이 감에 따라 더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날 민영희동무는 남편에게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지금까지 당의 사랑과 은정만 받으며 자라온 제가 당신을 잘 돕지 못했어요.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중계공이 되겠어요.》

《고맙소. 나도 초소를 당신에게 맡겼으면 했더랬소.》

민영희동무는 이렇게 중계공이 되였다. 중계공일은 헐치 않았다. 중계실의 온도보장을 위해 추운 겨울날 땔나무를 해와야 했고 발동기가 고장나면 부속품을 구하러 수심리길을 걸어야 했다. 하루 24시간 어느 한시도 중계실을 비우면 안되였다. 그러다나니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다. 민영희동무는 말없이 자기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남편인 김종철동무가 더없이 고마웠다.

강추위가 계속되던 어느해 겨울이였다.

중계근무를 서던 민영희동무는 집을 나섰다. 이심리풍 떨어진 마을에 가면 남편의 위병치료에 좋은 고려약재를 구할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였다.

그날 저녁 남편은 약재꾸레미를 들고 들어서는 안해를 책망하였다.

《당신 오늘 중계근무가 아니요?…》

그리고는 손목을 이끌어 자기옆에 앉히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라고 당신의 마음을 왜 모르겠소. 그러나 당신이야 나보다 텔레비죤화면을 통해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뵈옵고싶어하는 마을사람들을 더 생각해야 할 사람이 아니요. 근무시간에 고려약재를 구하러 가다니.》

민영희동무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초소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남편은 안해가 가정일에 마음쓰지 않도록 있는 성의를 다하였다.

민영희동무에게 있어서 김종철동무는 남편이기 전에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스승이였다.

하기에 민영희동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산중초소를 지키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그날 근무를 서던 민영희동무는 중계일지에 새 란을 더 만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과 영화문헌, 중요보도들과 편집물들의 중계시간을 기록하는 란이였다. 일시 정전이 될 때에는 축전지를 리용하였고 몇년후에는 태양빛전지판도 설치하였다.

이렇게 민영희동무는 지난 17년간 중계공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조국땅 한끝에서도 언제나 우리 당중앙위원회가 자리잡고있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그리며 사는 마을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민영희동무는 중계설비의 부속품들도 자체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웃들과 마을사람들은 그러한 민영희동무를 진심으로 도와나섰다. 그럴수록 그는 주민들을 위해 맡은 일을 보다 책임적으로 하였다.

어느덧 민영희동무의 딸 김진향이 소학교에 입학하였다. 딸은 어머니가 근무를 설 때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하루종일 혼자 있어야 했다. 입학하던 날에도, 소년단에 입단할 때에도, 운동회가 진행될 때에도 부모들과 함께 오는 아이들이 부러웠다.

언제인가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초소로 올라가는 어머니에게 딸은 손목을 꼭 잡고 물었다.

《어머니가 꼭 중계공을 해야 하나요?》

민영희동무는 그러한 딸을 정히 품에 안아주었다.

《우리 진향이가 다 지랐구나. 어머니걱정을 하는걸 보니.》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였다.

(너도 크면 어머니가 왜 중계공이 되였는가를 알게 될거다.)

그 딸이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였다. 진향이는 어머니가 왜 산중초소를 떠나지 못하는지, 한생을 외진 초소에 묵묵히 바쳐가며 자기더러 산골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되라고 했는지 리해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머니의 소행을 료해하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셨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 진향이는 어머니를 소리쳐 자랑하고싶었다.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이야!》

이렇게 민영희동무는 지난 17년간 10여종에 수십점에 달하는 부속품들을 자체로 마련하고 텔레비죤중계를 보장하였다.

그는 산중초소를 더없이 사랑하였다.

낡은 중계초소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 건설할 때였다. 일부 사람들은 혼자서 그러지 말고 우에 제기해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민영희동무는 머리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제손으로 꾸려야 더 정이 들것 같습니다.》

그는 제손으로 설계를 하고 자재도 해결하였다. 그리고 물동을 등에 지고 카파로운 비탈길을 오르내렸다. 이렇게 그는 함께 일하는 중계공과 같이 두달남짓한 사이에 기어이 제힘으로 중계초소를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초소주변에는 100여그루의 나무를 심고 묘목장도 훌륭하게 만들어놓았다. 그는 이처럼 자기 일에서 만족을 몰랐다.

충정의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그는 전투기간 텔레비죤중계를 잘하기 위해 당조직의 방조밑에 축전지 한대를 더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텔레비죤중계임무를 더 잘 수행하였다.

민영희동무는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녀성이다. 차이난다면 거칠진 손과 볕에 탄 얼굴이다. 자기 자랑도 할줄 모른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 오히려 얼굴부터 붉히며 이 나라 공민으로서 응당한 일을 했을뿐이라고 이야기하는 민영희동무.

그는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하는 참된 인간이다.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그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언제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혁명초소를 묵묵히 지켜가는 민영희동무와 같은 애국자들이 많아 우리 조국은 언제나 당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것 아니겠는가.

특파기자 리 은 남

절세위인을 모시여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 행성을 뒤흔든다

백두령장의 담력과 배짱은 우리의 힘이고 승리이다

장엄한 70일전투의 불길속에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는 우리 조국에 건군절의 아침이 밝아왔다. 어느덧 84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4월 25일은 천하무적의 혁명강군을 가진 민족적긍지, 선군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억척불변의 신념을 더욱 굳게 새겨주는 전인민적명절이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군력이자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강성국가도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다는것을 뼈에 새긴 천만군민이다. 돌이켜보면 오늘의 세계는 소란하다. 힘의 론리, 힘의 질서, 힘의 통치를 제창하는 제국주의광풍이 이 대륙, 저 대륙을 사정없이 휩쓸며 전쟁과 분쟁의 불집을 쉬임없이 일구고있다. 지구의 여기저기서 무고한 인민들의 눈물과 곡성이 랑자하고 류혈의 참극이 잇달아 빚어지고있다. 걸핏하면 마구 치고 무시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적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이 령토와 자주권을 무람히 짓밟히우고 선량한 사람들이 침략의 위협앞에 불안과 공포로 떨고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폭풍속 비약하는 창조와 건설의 마치소리, 웃음과 노래가 힘있게 울려퍼진다. 한 민족의 사상과 리념을 변화시키는것을 식은죽먹기로 아는 제국주의가, 한 나라에 폭탄세례를 퍼붓는것쯤은 아이들의 장난으로 아는 제국주의가 이이하여 사회주의조선의 풀 한포기조차도 건드리지 못하는가. 세계의 물음앞에 우리는 긍지높이 떳떳이 대답한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백두령장이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위대성은 령도자에 의해 결정된다. 령도자의 불변의 혁명신념, 강인담대한 담력과 배짱은 천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민족의 강대성의 원천이며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최강의 무기이다.

제국주의강적들과 맞서 류례없이 간고하고 엄혹한 조건에서 반제민족해방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했던 조선혁명, 오랜 투쟁력사와 강대한 국력을 가진 나라들까지 무자비하게 무너뜨린 세기의 대풍파를 헤쳐나가고 승리의 령마루에 당당히 올라선 조선혁명의 투쟁사는 그것을 론의할 여지없이 증명하였다.

창건된지 두해도 안되던 우리 공화국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을 당했을 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자고 씨렁씨렁하게 말씀하시던 위대한 김일성동지, 백두산호랑이로 명성을 떨치시여 말톱까지 무장했던 날강도 일제를 때려눕히신 강철의 령장의 그 배심이 있어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네리막길의 시초를 연 우리의 7.27전승이 마련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하나를 마스면 우리는 열, 백, 천을 일떠세우자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호소따라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조이고 천리마의 나래를 힘있게 펼쳐 페허우에 락원을 일떠세웠다. 동해의 푸른 물에 침략의 갈기를 사납게 일구던 《푸에블로》호사건때에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고 선언하시던 그 년대를 넘어 판문점사건으로 몰아온 전쟁의 불구름아래서도 수도의 새 예술극장공원에 놓을 바위들을 운반하던 그 배심이 세계를 놀래웠다.

지난 세기 마지막년대에도 그랬다. 사회주의종말로 막을 내릴번 하였던 그 년대가 사회주의승리의 년대로, 우리 공화국이 불사신의 모습으로 더욱 억세게 솟구쳐올라 강성국가건설에로 돌입한 년대로 된것도 희세의 선군령장의 불굴의 신념과 배짱이 안아온 기적이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이 세상의 온갖 원쑤들,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자들과는 지구가 깨여져도 결판을 내야 한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멸적의 배짱과 담력이 지구를 드르릉 울리였다. 《유일초대국》도 벌벌 떨게 하는 우리 장군님의 담력은 백두의 기상을 닮고 어린시절에 벌써 두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억세게 다져진 천품적기질이며 정의의 위업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 무궁무진한 근로인민대중의 힘을 당할자는 세상에 없다는 드높지 않는 믿음에서부터 발현된 누구나 지닐수 없는 위인적기질이다. 총대는 변하지 않는 동지라는 지론을 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여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의 기적을 이룩하시였다.

혁명은 순수 지식이나 말로만 하는것이 아니다.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이다. 배짱이 없으면 온갖 풍파를 헤치고나가야 하는 혁명을 할수 없다. 하지만 잘망한다고 해도 누구나 쉽게는 못 가지는것이 담력이고 배짱이다. 세상에는 재부와 향락을 놓고는 우쭐렁거려도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마당에서는 쉽게 기가 꺾이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주권국가라고 하지만 자기의 존엄을 훼손당하고도 할 소리를 크게 못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제국주의자들의 거듭되는 엄포앞에 주눅이 들어 그들의 눈치만 보며 정책을 펴는 가련하고 비굴한 나라들도 있다. 국가수반이 침략군의 포로로 되는가 하면 치욕의 피고석에 앉게 된 비화들도 있다. 담력과 배짱은 결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군력과 경제력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나라와 인민만이 자주적인 신념과 배짱을 지닐수 있고 발휘할수 있다.

또 한분의 위대한 령장의 숭엄한 모습이 세기의 령마루에 거연히 빛나고있다. 세계의 이목이 조선에 집중되고 절세의 위인을 우러러 머치는 만민의 찬탄과 칭송의 메아리가 지구를 뒤흔들고있다. 천하를 휘여잡을 령장의 기상과 온 누리를 밝히는 태양의 모습으로 시대앞에 나서시여 세계의 정치흐름과 력사의 새 세기를 주도해나가시는 희세의 령장 김정은동지! 우리 민족사와 세계정치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의미심장한 사변들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세상사람들은 이 거창한 시대적흐름의 한복판에서 21세기를 주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설적인 위인상에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지난해 4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소식이 전파를 타고 전해졌다. 순간 세계언론들이 죽가마처럼 끓었다. 세계의 초점은 조선으로, 백두산으로 쏠렸다.

조선의 최고령도자의 백두산행보가 시사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인도네시아의 《국제일보》는 그 해답을 백두의 눈보라에서 찾았다.

《백두의 눈보라는 살을 베는듯 한 눈가루, 얼음가루의 돌풍이 천지를 휩쓰는 말그대로의 칼바람이다. 지동치는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대조선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던 때 밀려드는 적의 대군을 말밑에 굽어보시며 백두산에 오르신 그이의 미소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의 표시라고 해야 할것이다.

돌이켜보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이후 김정은령도자께서 걸어오신 길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끄떡없이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을 승리에로 이끄신 완강한 의지의 전투행로라고 할수 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고 강성국가건설을 전두지휘해오신 격렬한 공격전의 나날이였다. 이 나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그 누구든 조선의 자주권을 건드리는것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백두의 칼바람과도 같은 초강경대응으로 단호히 짓뭉개버리시였다.》

세계는 백두의 혁명전통을 최상의 경지에서 계승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느꼈고 그이따라 백두산으로 오르는 우리 인민뿐아닌 진보적인민들의 끊길줄 모르는 발걸음소리를 들었다. 일찍부터 위대한 장군님과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을 함께 걸으시며 령장의 풀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시였으며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령군술로 주체의 전군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우리의 원수님께서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끊임없이 이어가신 최대열점지역 섬방어대들에로의 풍랑사나운 배길과 판문점, 철령과 오성산의 칼바람길들에는 혁명무력강화에 바쳐가시는 백두령장의 위대한 헌신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지금도 세계는 잊지 않고있다. 수십억 인류가 불안과 우려속에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던 2015년 8월의 조선반도를.

원인모를 자그마한 사건이 발단으로 되였지만 군사적도발의 배후에는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을 하루빨리 지도우에서 영영 없애버리려는 원쑤들의 흉계가 깔려있었다. 이를 전후하여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무력이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하여 밀려들어 전쟁소동에 광분하였다. 적들은 전쟁연습에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추종세력들까지 끌어들이며 저들의 범죄적흉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였다. 제2의 조선전쟁발발까지는 불과 한발자국이였다.

그러나 그리도 기세등등하게 덤벼들던 힘의 왕신자들은 제풀에 주저앉았다. 결코 승냥이의 본성이 변해서가 아니였다. 《힘의 론리》에 따른 강권행사가 살관치는 력사의 한복판에 서시여 정의와 평화를 수호해가시는 백두산장군의 지략과 담력앞에 공포에 질렸던것이다. 실로 조선반도 8월사태의 기간은 령도자를 닮은 천만군민이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으로 력사의 돌풍을 파감히 뚫고온 신념과 의지의 나날이였고 전세계가 조선의 정신과 기개를 다시한번 알게 된 나날이였다. 위대한 당을 따라 준엄한 력사의 폭풍우를 헤치며 다지고다져온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장구름을 밀어내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

조선의 승리,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 한 민족의 승리가 아니였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였으며 자주정치의 승리, 선군의 승리였다. 사람들은 진정한 힘, 강대한 힘의 위력은 위협한 침략을 막아내고 그로부터 발생될수 있는 참혹한 전쟁을 막아내는데 있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세상사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행성의 위대한 수호자, 현시대의 락월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였다.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교육재단은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커다란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카르노의 별상》을 수여해드리였다.

또 한번 세계가 보았다.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2016년의 서막을 열어제끼고 시련의 눈보라속에서 불사신처럼 우주에로 솟구쳐오른 선군조선의 억센 기상에서, 《참수작전》이니, 《족집게식타격》이니 뭐니 하며 핵전쟁을 몰아오는 일촉즉발의 정세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려명거리건설을 선로하며 세계를 향해 파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모습에서 오늘의 이 투쟁을 전두에서 이끄시는 백두령장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배짱을 똑똑히 새기였다. 우리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가슴벅차게 느꼈다.

명장밑에는 약졸이 없다. 천하를 뒤흔드는 백두령장의 담력과 배짱은 우리의 힘이고 승리이다. 이 행성의 정의인이시며 최장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천출명장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그 이름도 자랑스럽고 긍지로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아들딸들이 사는 사회주의조선은 백두산호랑이가 딛고선 금성철벽의 땅이다.

백 금 희

영 원 한 전 통

◇ 6.25뒤에는 승리의 7.27이 있다. 이것은 1950년대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폈던 미호전광들에게 영웅조선이 준 대답이다.

창건된지 불과 2년도 안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거둔 승리는 세상을 놀래운 기적이였다. 정전협정조인후 방송마이크앞에 나타난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구슬픈 어조로 《대가는 컸다. 이것은 비극적인것이였고 쓰라린것이였다.》고 토설하였다. 미국력사에서 항복서에 서명한 첫 패전장군이 된 클라크를 맞이하던 때를 두고 그의 어머니는 《그 당당하던 기개도 위풍도 간곳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서는 두줄기의 눈물만이 흘러내렸다.》고 회고하였다. 당시 미국의 출판물들은 《미국은 전쟁에서 패하여 슬픔에 잠겨있다.》고 대대적으로 전하였다.

그렇다. 《강대성》의 신화를 황금모자처럼 들고다니며 자랑하던 대아메리카제국이 조선인민앞에 흰기를 들고나서는 최대의 정치군사적비극을 통감하였다. 미제에게 있어서 이것은 쓰디쓴 고배를 마시게 하는 시작점, 쇠퇴몰락의 시초로 되였다.

◇ 백전백승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힘을 믿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선 군대와 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다는것, 바로 이것이 력사의 진리이고 법칙입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과정에 형성되고 계승되여온 두 전통이 있다. 력사적으로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과 허장성세하며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지금껏 미국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고안하고 강행한 짓거리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그때마다 침략자, 도발자 미국은 패자의 치욕을 감수했다. 《푸에블로》호사건때에 미국정부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에 사죄문을 바친 미국대통령 존슨은 《미국이 생겨 력사에 남긴 사죄문은 오직 그것 하나》라고 우는소리를 했다. 조미대결전의 전력사적과정에 미제는 이렇게 머리를 수그리고 사죄문 등의 항복서들을 련속 가져다바치였다. 이 두 전통은 절대로 뒤바뀔수 없다.

◇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세기를 이어 계승되고있다.

총포성이 없는 오늘의 첨예한 조미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는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그이께서 지니신 백두의 공격기질과 휘어진 령군술, 강철의 담력과 드센 배짱은 세계를 경탄시키고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있다. 인디아신문 《인디안 엔드 월드 이벤트》는 오늘의 조선은 1950년대초와 같이 청소한 나라가 아니다, 지난 조선전쟁이 미국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면 새 전쟁은 그들의 완전종말을 가져올것이다라고 조미대결전의 승패를 예평하였다.

산이 제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밑이라는 말이 있다. 모략과 날조의 능수 미국이 조미대결의 패전사를 《승전》으로 둔갑시키며 세계《유일초대국》의 위세를 뽐내려 해도 우리는 미국을 발아래로 내려다본지 이미 오래다. 앞으로 세계는 제2의 조선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미국의 운명이 위대한 선군령장이 억세게 틀어진 최강의 핵보검앞에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 무릇 생활에서는 례사롭게 흘려보내던것이 새로운 의미로 안겨드는 때가 있다. 얼마전 자료위제과정에 본 미국의 《반테로전》참가자의 참상이 그러하다.

그로 말하면 정부가 수많은 상금을 걸고 찾던 《위험분자》 소탕작전에 참가하여 남다른 《공》을 세운 미해군특수부대 병사였다.

그는 모국에 돌아가면 《영웅》으로서 만사람의 선망속에 살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것은 구심한 생활고였다. 보다 통분케 한것은 《국익》을 위해 총을 들고나선 덕에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언제 날아들지 모를 봉탄세례때문에 공포에 시달리는것이였다. 오죽하면 그의 안해가 자기의 성을 바꾸는것을 검토한다, 총을 쏘는 방법을 익힌다, 아이들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육조안에 숨는 방법을 가르친다 하며 야단법석하였겠는가.

그가 군복을 입던 날 받은 소책자에는 국가가 병사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고있다, 너는 너에게 차례진 인간을 죽이는것으로 이를 보상할수 있다고 씌여져있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총대의 사명에 대해 되새겨보게 하였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총대는 무엇으로 위력하며 어떻게 빛나는가를 생각케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과 항시적인 전쟁위협속에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혁명의 총대를 강화하고 튼튼히 틀어쥐여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나라와 민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총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여왔다.

어느 계급의 손에 쥐여졌는가에 따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폭압의 수단으로 혹은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강위력한 보검으로 총의 사명 또한 달라졌다.

전쟁과 동란의 세기로 특징지어진 20세기의 전쟁사는 총대를 악용한 제국주의의 군사적강권행사가 얼마나 횡포한것인가를 립증해주고있다.

말로는 지킬수 없는것이 자주성이고 구걸로도 이룰수 없는것이 나라의 번영발전이다. 나라와 민족적번영의 가장 위력한 담보는 총대이다. 국력도 총대에서 나오고 민족적자부심도 총대에서 나온다.

하지만 총대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자주독립국가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운동력사가 총대와 관련하여 남긴 피의 교훈이 있다. 사상이 없는 총대는 한갖 쇠불이에 불과하다는것이다.

한때 세계에서 불패의 강군으로 이름날리던 어느 한 나라의 군대도 자기 나라가 사회주의배신자들에 의해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는것을 명청하니 보기만 하였다. 말하자면 《중립》을 지켰던것이다.

당시 이 나라의 군대는 세계 일류급의 무력으로 알려져있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이 나라의 무장장비기술이 미국보다 10-15년이상 앞섰다고 비명을 지른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규모가 크고 장하다고 하던 무력이 자기 나라가 붕괴될 때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적지 않은 군인들이 반사회주의행위에 가담하였다. 이것은 군대의 비사상화, 비정치화가 초래한 결과였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은 당정치사상사업을 문화오락적인 사업으로 만들고 군대의 당조직들을 수정주의적인 구락부들로 만들어놓았다. 하여 총대는 사상을 잃게 되였고 자기의 사명을 버리게 되였으며 종당에는 사회주의가 붕괴되는것을 보면서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적과의 싸움은 물리적힘의 대결이기 전에 사람의 정신력, 사상의 대결이다. 우리 나라의 실천적경험이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의 백만대군과의 생사를 가르는 혈전이였다. 쏘련신문 《이즈베스찌야》는 《조일전은 김일성명장휘하의 정신적장군이 일본제국의 정신적약군을 련전련패시킨 전쟁이였다.》고 보도하였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였던 지난 조국해방전쟁도 미국이 항복서에 도장을 찍는것으로 막을 내렸다. 당시 《트루우다》 특파기자였던 폴스찌포브는 그 순간을 사진에 담고 《나는 작은 나라 조선의 병사들의 불굴의 정신이 대아메리카제국의 땅크들을 현철불이로 만드는것을 직접 보았다.》고 썼다. 군사기술적으로 우세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것이 변할수 없는 공식처럼 되여있던 무기만능론의 신화는 이렇게 산산이 깨여져나갔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조미대결의 전행정에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를 지도하시면서 사상만능론을 들이쥐고 사상위주로 나갈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우리 당의 총대중시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과 전쟁연습책동을 전례없이 악랄하게 벌리며 우리 공화국을 《붕괴》시켜보려고 미쳐날뛰고있지만 자주적근위병, 자주적인민으로 영원히 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만연되여 인간도 사회관계도 야수화되여가는 미국의 정신적허약자들이 전쟁을 해야 얼마나 잘하고 제아무리 최첨단을 자랑하는 무기인들 무슨 용을 쓰겠는가.

우리에게는 미제를 비롯한 원쑤들이 여기저기 뚫고다니며 군사적위력을 뽐내는 최신예항공모함들이 한갖 비대한 면태동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의 사상으로 만장약되고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총대, 강위력한 핵보검이 있는 한 승리는 영원한 조선의것이다.

본사기자

수필 쇠불이와 보검

☆ 로동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프랑스에서 당국의 부당한

오늘의 세계

날로 높아가는 반미반전기운

미호전세력들의 전쟁광기가 극도에 달하고있다. 미국방장관 애슈톤 카터는 《반테로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미군무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떠벌였으며 미군의 다른 고위인물들도 미국이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이나 로씨야와의 전쟁에 준비되여있지 못하다는데 대해 실토하면서 군사비지출을 더욱 늘여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그런가 하면 미국분석센터 스트래트포의 창립자인 프리드맨이라는자는 력사에는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은 세기가 없었다고 궤치면서 미국이 그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호전적인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침략전쟁이라는 군사적강권을 발동해서라도 기울어져가는 저들의 운명을 부지해보겠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으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이미 미국의 전쟁마차는 광란적인 굉음을 울리며 미친듯이 질주하고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벌려놓고있는 무장장비현대화책동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에 써먹을 지대지미싸일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얼마전 아칸소주에 있는 한 군수공장에 전술미싸일생산흐름선을 차려놓고 가동시켰다. 한편 뉴멕시코주에 있는 미싸일시험장에서 소형요격미싸일발사시험을 감행하였다.

미해군은 군수독점체인 레이티온회사와 《증월드》급 다음세대 다목적전투함선들의 건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오래곤주의 포틀랜드에서 시험용무인군함을 공개하는 놀음도 벌어졌다. 미국방성은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이 무인군함을 앞으로 5년안에 서태평양상에 실전배비할것이라고 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쟁도발기도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른 미국의 발악적인 침략전쟁책동으로 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무참히 파괴되고있다. 하여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전쟁광신자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은 미국이 존재하지도 않는 《로씨아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벌리고있는 대규모적인 전쟁준비책동은 유럽의 평화와 안전리익에 부합되지 않을뿐아니라 유럽에서의도적으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려 한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전쟁준비책동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로씨야의 체츠냐공화국 수반 까디로브도 리아 노보스찌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지난 100여년동안에 세계적으로 일어난 130여차례의 분쟁에 개입하였으며 50여개의 나라들을 침략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야말로 그 어느 나라에도 비길데 없는 악의 근원이라고 단죄하였다.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에서는 미국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들이 일어났다. 시위참가자들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중동에서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참혹한 피난민위기가 초래되였다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미국집권세력들의 무모한 침략전쟁야망은 미국인들속에서까지 심각한 불만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뉴욕시에서는 당국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에 참가한 각계층 군중들은 《미국은 세계적난문제들의 근원이다》, 《새로운 랭전을 반대한다》, 《폭탄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라》라는 글들이 씌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간섭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라는 악의 제국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며 발전하려는 인류의 간절한 념원은 이룰수 없는 한갖 꿈으로밖에 될수 없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미국의 호전세력이 침략적인 전쟁정책에 계속 매여달릴수록 국제적인 반미반전기운은 더욱 고조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안 철 권

로씨야에서 레닌탄생일 기념집회 진행

【모스크바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22일 위. 이. 레닌탄생 146돐 기념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로씨야공산주의자당과 전련맹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을 비롯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층 군중 700여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또한 레닌과 쓰딸린, 체 게바라의 초상화와 붉은기들을 들고있었다.

참가자들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구호들을 웨치면서 미국과 나토, 친서방적인 세력들을 신랄히 비난하였으며 자본주의경제방식을 반대하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로씨야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집회에서 사회주의만이 사람들을 무상으로 치료하고 살림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로병들에 대한 응당한 대우를 실현할수 있는 사회경제제도를 보장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안전장벽》구축에 깔린 흉심

지금 이스라엘이 요르단과 접하고있는 연선에 《안전장벽》을 구축하기 위해 광분하고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의 남부도시 에일라트에서부터 텔아비브에 있는 새 국제비행장까지 건설되는 이 《안전장벽》은 그 길이가 30km에 달한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이 건설을 어떻게 하나 올해말까지 끝내려는 타산밑에 여기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이 건설에 7000만US$가 훨씬 넘는 막대한 자금이 탕진되게 된다고 한다.

이스라엘이 《안전장벽》을 구축하는 놀음을 벌려놓은것은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02년부터 팔레스티나의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콩크리트장벽과 가시철조망 등으로 형성된 《안전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런가 하면 2013년에는 에짚트와의 접경연선을 따라 길이가 무려 240km나 되는 《안전장벽》을 완공해놓은 상태이다.

현재 요르단과의 접경연선에서 추진중에 있는 《안전장벽》건설까지 완료되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안전장벽》을 구축해놓는것으로 된다.

문제는 이스라엘당국자들이 《안전장벽》을 놓고 주변나라들의 《위협》으로부터 올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는데 있다.

이번에 요르단과의 접경연선에서 추진하고있는 《안전장벽》건설장을 행각한 이스라엘수상 네타냐후는 주변나라 사람들을 《야만》들로 묘사하면서 그들로부터의 《위협》을 막자면 이스라엘을 《안전장벽》으로 완전히 둘러막아야 한다고 뇌까렸다.

에짚트와의 접경연선에 《안전장벽》을 건설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때에도 이스라엘당국자들은 에짚트와의 접경연선에 구축하는 《안전장벽》이 아프리카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는 당치 않은 구실을 내대며 강행추진하였었다.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고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지역정세를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는 주범인 이스라엘이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거론하는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다.

아랍나라들모두가 예로부터 살아온 자기 땅에 유태인국가가 존재하는것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의 비호밑에 올태인들은 팔레스티나땅에 일방적으로 금을 그어놓고 이스라엘《국가창건》을 선포하였다. 그후 이스라엘은 여러차례의 중동전쟁을 일으켜 많은 아랍땅을 강점하고 주인행세를 하였다.

팔레스티나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팔레스티나의 동부구트스를 강제병합한 이스라엘은 알아크사사원을 저들의것으로 만들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알 아크사사원이 이스라엘령토에 있어서 불가분리의 한부분이며 따라서 이스라엘법치하에 있어야 한다는 강도적인 론리로 팔레스티나인들의 사원출입을 금지시켰으며 지어 사원을 폐쇄하기도 하였다.

한편 유태인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면서 오늘까지도 무분별하게 늘아대고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4분기에 이스라엘당국의 올태인살림집건설계획에 따른 살림집건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주변나라들의 《위협》에 대해 떠들며 《안전장벽》건설의 당위성을 운운하는것은 단순히 강점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애써 가리우자는것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보다 심각하고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이스라엘이 구축해놓은 《안전장벽》 그자체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국경》으로서 비법적으로 타고앉은 땅을 군사적으로 요새화할수 있는 기반으로 된다.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을 《안전장벽》으로 완전히 둘러막아야 한다고 뇌까린것은 결국 강점한 령토를 완전히 저들의 땅으로 영구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스라엘이 《안전장벽》건설에 숱한 자금을 퍼부으며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령토강점영구화책동은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팔레스티나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부당한 《안전장벽》건설책동은 령토강점을 영구화하려는 불법무도한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계속하여 그것이 중동평화과정을 파괴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안전장벽》건설을 지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요르단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도 《안전장벽》건설의 목적이 이스라엘민간인들을 보호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팔레스티나령토강점을 뒤받침하려는데 있다고 규탄하였다.

령토강점을 영구화하려는 이스라엘의 음흉한 책동으로 하여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더욱 료원해지고있다.

이스라엘은 저들의 행동이 국제적고립과 규탄만을 불러온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림 원

ㄱ-61067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6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